소년단

1958, 2

유화 조국을 향하여

앞표지…승리한 전사…… 김 승규 조각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에서)

소년단 1958년 2호 내용

◇박 한 무◇

동북 화전현에 한충거우라는 큰 집단 부락이 있었다. 당시 유격대들의 활동을 두려워하는 일본 강점자들은 산간 지대의 농가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리고는 강제로 수백 호의 농가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이였다.

놈들은 부락 주위에 높은 토성을 쌓아 올리고 어마어마한 포대 (총 쏘는 구멍이 있는 돌로 쌓은 다락)까지 만들었다. 그리고는 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하여 백여 명의 무장 경찰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이 곳 인민들은 일본 제국주의 강도놈들을 증오하며 일찌부터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를 깊이 신뢰하고 원호하였다.

경찰놈들은 유격대와 련락한다 하여 날이 갈수록 무고한 인민들을 못 살게 굴었으며 닥치는 대로 인민의 재산을 략탈해 갔다.

원쑤들의 간악한 착취와 압박 속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은 용감한 유격대원들이 쳐들어 오기만 날마다 고대하고 있었다.

1938년 어느 늦은 여름 날이였다. 화전현 일대에 있는 적을 소탕하라는 김 일성 원수의 명령을 받고 최 현 선생이 지휘하는 유격대의 한 부대가 이 지방에 당도했는데 미리부터 유격대와 련계를 가지고 있던 한충거우 부락의 자위대장인 장 퇀장 (중국인)은 비밀리에 련락을 보내왔다.

장 퇀장은 한충거우 부락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 형편과 그들이 유격대의 진격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경찰놈들의 수'자, 무장 상태, 배치 략도들을 세세히 알려 왔다.

련락을 받은 최 현 선생과 유격대원들은 인민들의 고통을 가슴 아프게 동정하였으며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누를 길이 없었다. 최 현 선생은 대원들과 의논한 후 한충거우 부락을 습격하여 인민들을 괴롭히는 경찰놈들을 소탕해 버릴 것을 결심하였다.

그 날 밤 날이 어둡자 유격대원들은 면밀한 전투 준비를 갖추고 산에서 내려와 물이 질펀한 황무지를 지나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한충거우 부락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한충거우 부근에 이르렀을 때 최 현 선생은 미리 짜 놓은 작전 계획 대로 부대의 많은 부분을 한충거우에서 얼마쯤 떨어진 길목에 매복시켰다. 그것은 5리쯤 되는 곳에 위만군 (만주국 괴뢰군)1개 련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유격대가 한충거우를 치면 놈들이 덤벼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한 때문이였다.

최 현 선생은 소수 인원으로 감쪽같이 한충거우의 경찰놈들을 소탕해 버릴 작정으로 직접 30명의 대원을 인솔하여 밤 열두 시 경에 한충거우 부락으로 바싹바싹 다가 가서 우선 전화줄부터 끊어 버렸다. 밤은 먹물을 뿌린듯이 캄캄했으나 출입문과 포대에서는 놈들이 눈알을 부릅뜬 채 망을 보고 있었음으로 포성이 가까와지자 유격대원들은 한치한치 배밀이로 기여 들어 날쌔게 토성을 뛰여 넘었다. 이 때 한 농민이 유격대원들에게로 다가 왔다. 그는 장 퇀장이 보낸 사람이였다.

《저녁에 련락을 받았습니까?》 하고 그는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아니, 받지 못했소》 최 현 선생이 대답했다.

《그럼 큰 일 났습니다. 오늘 저녁켠에 위만군 1개 대대 약 500명이 부락에 쓸어 들었는데요》. 농민은 근심스럽게 말했다. 장 퇀장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시 유격대에 련락을 띄웠으나 그것은 이미 유격대원들이 련락 장소에서 길을 떠난 후여서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아무리 기습전이라 하더라도 30명으로써 600명이나 되는 적을 대항한다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었다. 실로 이것은 20대 1의 싸움인 것이다. 그러나 최 현 선생은 《유격대가 못해 낼 싸움은 없소. 500명이고 600명이고 인민의 원쑤들을 눈 앞에 두고 그냥 돌아설 수야 없지 않소》 하고 자기의 굳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이 말은 동시에 모든 유격대원들의 심정이기도 하였다.

최 현 선생은 곧 유격대원들을 몇 패로 나눠 출입문과 포대 그리고 경찰서와 놈들의 숙사 등 습격할 목표와 신호를 알려 주고 자신은 몇 명의 대원과 함께 위만군 지휘관들이 잠을 자는 집을 습격하기로 했다.

최 현 선생이 목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벌써 포대와 경찰서 쪽에서 총소리가 몇방 일어 났다. 이 때 놈들의 지휘부 앞 마당에서 보초를 서던 놈이 라팔을 꺼내 들고 비상 소집 신호를 불려고 했다. 최 현 선생은 《불지 말아!》 하고 낮게 웨치며 번개처럼 달려 들어 놈의 가슴에 싸창 (큰 나무 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권총)을 들어댔다. 그러나 놈은 얼떨떨한 목소리로 《아니야, 유격대가 습격 왔는데 왜 불지 말라고 그래》 하고 자기 편인 줄 알았던지 얼빠진 수작을 했다.

《이 놈 우리가 유격대다. 꼼짝 말고 군호 (야간에 군대들이 서로 주고 받는 암호)를 대라!》.

최 현 선생은 날카롭게 총끝을 들어 대며 말했다. 그제사 놈은 초죽음이 되여 와들와들 떨며 군호를 대고는 살려 달라고 손을 싹싹 비볐다.

다음 순간 유격대원들은 적들의 지휘부에 뛰여 들어 수류탄을 던지고 맹렬한 사격을 들씌웠다. 마음 놓고 잠'자리에 들었던 놈들은 갑자기 불벼락을 만나자 미친개처럼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유격대원들은 사방에서 호된 습격을 시작했다. 포대를 점령한 유격대원들은 그 우에서 기관총으로 적들의 숙사를 향하여 불을 퍼부었고 적탄통으로 쾅! 쾅! 놈들의 집결 구역을 사격했다.

흉악한 원쑤들은 여기저기서 무리로 쓰러졌다. 그러나 원체 놈들의 수가 많았으므로 한 쪽에서는 맞 불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싸움은 격렬해졌는데 유격

대원들은 이미 알아 낸 군호에 의하여 혼란된 놈들의 대렬 속에 섞여 들어가 불시에 한바탕씩 기관총을 휘둘러 적들을 삼' 대 쓸어 눕히듯 족쳐 버렸다.

한편으로는 겁을 집어 먹고 허둥지둥 헤매는 놈들을 모조리 포로하여 무장 해제시켰다.

이리하여 불과 몇 십분 동안의 전투에서 유격대원들은 적의 거의 전부를 살상 포로하여 대 승리를 거두었다. 유격대원들은 이 싸움에서 기관총 5정과 놈들이 새로 공급 받은 수백정의 보병총과 많은 총알 그리고 식량, 피복 등 수많은 군수 물자를 로획하였다. 이 전투에서 유격대는 한 명이 손에 부상을 입었을 뿐이였다.

통쾌하게 원쑤들을 족쳐 버린 유격대원들은 부락 인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조 중 인민의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선전하였다. 그리고는 인민들에게 로획한 식량을 나눠 준 후 로획한 무기와 군수 물자들을 포로한 놈들에게 지워 가지고 기세 높이 한충거우 부락에서 철수하였다.

5리 밖에 안 되는 곳에 주둔하고 있던 적들의 련대부는 유격대가 한충거우 부락을 습격한 것을 뻔히 알았을 것이지만 워낙 유격대를 무서워 하는 놈들이라 지내 겁을 먹고 꼼짝달싹도 못했던 것이다.

유격대원들이 산 속에 들어 왔을 때 포로된 적 장교 한 놈이

《도대체 우리를 습격한 당신들의 대부대는 어데 있소?》 하고 의아쩍게 물었다.

이 때 최 현 선생은

《너희들 몇백 명쯤을 습격하는데 무슨 대부대까지 필요 있겠느냐, 보는 바와 같이 너희들을 습격한 부대는 바로 이 사람들이다》 하고 30명 밖에 안 되는 유격대원들을 가리켰다.

놈들은 리해되지 않는다는 듯이 공포에 찬 신기한 눈으로 유격대원들을 둘러보는 것이였다.

협동조합에 들어간 이야기

◇최 화 규◇

어둠이 깃드는 저녁이였습니다. 오 등룡이네 집을 찾아 온 제 1반 동무들은 뜰 안에 들어서서 (등룡이를 부를가? 말가?) 서로 얼굴을 쳐다 보며 망서립니다.

등룡이는 이 날도 방 안에서, 장사를 하는 어머니에게 협동 조합에 들어 가자고 조르고 있습니다. 전 같으면 그의 어머니가 벼락 같은 욕설을 퍼부었을 것이지만 이 번에는 퍽 너그럽게 등룡이를 대합니다.

《얘야, 너희들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로구나! 어머니 걱정은 그만하고 공부나 하렴》.

문틈으로 흘러 나오는 이 말은 반 동무들에게 흥미를 끌었습니다.

《얘, 인젠 마음이 퍽 달라졌지?》.

《아니야, 아직 멀었어…》. 영진이는 응빈의 귀에 손을 대고 소근거리면서 다시 방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등룡이와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방 안에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씨원히 말씀을 해 주세요, 남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협동 조합에 들어 가는데 어머니는 왜 그러십니까, 반 동무들까지 협동 조합에 들어 가면 지금보다 생활이 나아지고 또 나라에 리익을 주게 된다고 늘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아요…》라고 등룡이는 어머니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나 이 번에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말이 어머니의 가슴을 찌르는듯 싶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지요.

지난 날 등룡이네 반에서는《등룡이의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 드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는 여러 동무들이 돈 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영 상점의 상품을 사서 되거리 장사를 하는 어머니들을 협동 조합에 들도록 돕자고 의논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매주일 한 번씩 등룡이네 집에서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내각 결정 104호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 모습을 이야기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때마다 어머니는 반 동무들의 이야기를 재미 있게 들으시군 하였습니다. 특히 평양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정말 평양엔 굉장히 큰 집들이 날마다 새롭게 건설되더구나》라고 어머니는 말참견을 하시면서 건설된 평양의 거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장사를 하느라고 늘 평양에 다니시여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 동무들이 《공업 및 농업 전람관》을 본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였을 때 어머니는 《내야 시장에만 다녔지 그런 것들이야 어디 볼 생각이나 했니?》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반 동무들은 어머니에게 꼭 전람관을 보시고 말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반 동무들이 그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도 그랬지만 어머니께서 직접 우리 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보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반 동무들이 바라는 대로 평양의 《공업 및 농업 전람관》과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을 보시고 돌아 왔습니다. 어머니는 퍽 만족해 하시였습니다. 어머니는 《거 참 굉장하더구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한 내가 부끄럽더라!》라고까지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전과 다름없이 장사를 계속하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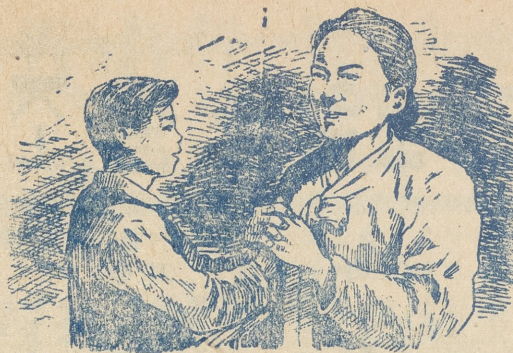
그리하여 반 동무들은 이 날도 어머니에게 협동 조합이 왜 좋은가를 이야기해 드리려 모여 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에서 울려 나오는 말 소리는 전보다 더 똑똑히 들려 왔습니다.

《얘야,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니 돈을 벌어야 너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공부시킬 것이 아니냐》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반 동무들은 어머니에게 좀 더 좋은 소식을 알려 주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등룡이 어머니는 아래'목에 누워 계시다 일어나 앉으시면서 《너희들 왔나!》하고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영진이는 《오늘 우리 학교 대에서는 남칠 농업 협동 조합을 견학하고 이야기 모임을 가졌어요》라고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전 정복 영웅이 있는 곳 말이냐?》.

《그래요, 그 협동 조합을 잘 아십니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기차칸에서 지나는 말로 좀 들었다. 어디 너희들이 가 보고 온 이야기나 좀 하렴…》라고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영진이는 올해에 한 로력 일당 7к500g을 받는 남칠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먹고 쓰고 남아서 량곡 400톤이나 나라에 수매한다는 이야기며 온돌방, 마루방은 물론 학습하기 좋은 방까지 달린 문화 주택을 많이 짓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에는 스피까가 놓여 있어 제 때에 새 소식을 듣고 있는 이야기며 농촌의 문화 건설에 더욱 힘쓰고 계시는 협동 조합 아저씨들의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영진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머니는 부유해진 농촌을 눈으로 보시는듯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며 감탄하시였습니다.

영진의 말이 끝났을 때 응빈이는 자기 아버지가 장사를 그만 두고 맹산 농업 협동 조합에 들어 간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반 동무들은 저마다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등룡이만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저 반 동무들의 자랑하는 이야기를 아무 말없이 듣고만 계시였습니다. 반동무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 간 뒤에도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등룡이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 앉았을 때 어머니는 새 희망을 얻으신듯 등룡이를 끌어 안으면서 《장사를 한 내가 부끄럽구나, 너희 동무들은 훌륭한 아이들이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며칠이 지나서 등룡이어머니는 드디여 청룡 농업 협동 조합에 들어 가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등룡이네 집에도 새 생활이 시작되였습니다.

—평북 박천군 제3 중 학교 대
제11 분단에서—

분단 모임을 잘 조직하려면

◇리 종 기◇

소년단원 동무들의 분단 생활에서 제일 큰 《날》로 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는 분단 모임입니다.

잘 조직된 분단 모임은 소년단원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할 줄 알며 학습과 로동에 대한 자각적 태도를 가지며 선생님과 웃사람을 존경하고 동무와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마을과 거리에서 문화적으로 행동하는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 많은 학교의 분단들에서는 분단 모임을 잘 조직함으로써 분단 사업을 흥미 있고 훌륭하게 꾸려 나가는 좋은 경험들이 날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경험들에 의하면 분단 모임이 내용 있고 흥미 있게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시기에 분단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옳게 선택했는가 못 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분단 모임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또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는 중요하고도 의의 깊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때로는 모임 제목을 선택하기 매우 곤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임 제목을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서 새로 내놓은 결정은 어떤 것이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회주의 조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년단원들이 한결 같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루 바삐 고쳐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하여 모임 제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좋은 경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함흥 제 7중 학교 대 11분단에서는 지난번 공화국 내각에서 개인 상 공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할데 대한 결정 제 104호를 채택하였을 때 그 사업을 돕기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부모들을 돕자》는 제목으로 부모들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는 것을 방조할데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또 평양 제 1 고중 분단들에서는 소년단원들이 경각성을 높이고 간첩놈들의 활동을 제때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보이지 않는 적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분단 모임들을 가졌으며 양덕 1중학교 대 5 분단에서는 분단에서 소년단원답지 못한 행동이 자주 나타날 때에《소년단원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참된 소년단원이 되려면 어떻게 할가를 토론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더욱 흥미 있는 것은 청진 2중 학교 대 분단들에서 소년단원들 속에서 미신을 믿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한 모임들입니다. 이 학교 분단들에서는 먼저 주변에서 일어 나는 모든 현상들을 연구하고 그에 근거하여 모임 제목들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는 왜 오는가》, 《무당한테 속은 옥자 동무의 어머니》, 《창길 동무네 돼지는 왜 죽었는가》 등 제목으로 분단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들은 일부 동무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런 분단 모임들은 모두 재미 있게 진행되였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년단원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모임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소년단의 모임들은 모두 그러하듯이 분단 모임도 어떤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 토론하는 모임 제목의 내용과 환경에 따라 다채롭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각지 학교 대들에서 분단 모임을 새롭고 다채로운 방법으로 흥미 있고 내용 있게 잘 진행한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진 1중학교 대 2분단에서는 애국렬사 가족인 황 민자 동무를 돕기 위하여 분단 모임을 가졌습니다. 장소는 황 민자 동무네 집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는 황 민자 동무의 어머니로부터 황 민자 아버지가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열렬히 투쟁하시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분단 동무들은 모두 황 민자 동무의 아버지의 애국심을 본받으며 황 민자 동무의 뒤떨어진 학습을 힘껏 도와 주자고 토론하였습니다.

또 다른 경험을 하나 들어 봅시다.

강원도 안변 중학교 대 13분단에서는 자연'과 성적이 락후하기에 그를 고치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은 지난 5월에 《봄날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들에서 가졌습니다.

모임 장소는 맨 먼저 핀 꽃들로 장식하였고 모임은 봄에 대한 노래로 시작되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엔 들로 산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미 있는 형식으로 모임을 가짐으로써 소년단원들을 자연에 더 가깝게 하였으며 자연'과 학습에 흥미를 갖게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평양 제28 중 학교 대 각 분단들에서는 지난 1학기간 사업을 총화하는 모임을 여늬 때와 달리 소년단원들이 준비한 전람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분단 모임 장소들에는 몇 주일전부터 준비해 온 작품들을 진렬하였고 각 반과 크루쇼크들에서 보내온 우수한 학습장, 그림, 작문 공작품, 벽보 등이 진렬되여 있었습니다. 모임은 이 전람회에 전람된 일년간의 생활과 자기들이 얻은 훌륭한 경험들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한 선조들의 애국주의 정신을 배우기 위하여 분단에서 렬사의 묘지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모임을 조직한다든가 공장이나 농촌을 찾아가 로력 혁신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 등 좋은 경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분단 모임을 재미 있게 잘 조직하려면 분단 위원회와 열성자 동무들의 활동이 높아야 합니다. 분단 위원회는 분단 지도원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많은 열성자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 분단 모임을 어떤 제목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 그리고 어떻게 조직하겠는가를 자세하게 계획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하여 모임 준비를 잘 분공하여야 합니다.

분단 위원장의 이야기와 소년단원 동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준비하며 모임 장소는 어느 반에서 준비하며 손님들을 모셔 오는 것은 어느 반에서 책임 지는가 등을 비롯하여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분공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잘 준비된 분단 모임은 전체 분단 동무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더욱 흥미 있고 내용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단 모임에서는 소년단의 의식을 반드시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임이 자유로우면서도 절도 있고 지루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분단 위원회는 모임에서 토론하고 결정한 문제들이 잘 실행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모임이 끝났으니 일은 자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버려 둔다면 그 모임은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 할 것입니다.

빛나는 승리, 영광스러운 전망

1957년의 빛나는 승리

우리 나라 첫 5개년 인민 경제 계획이 시작된 해 1957년은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정신에 고무된 전체 근로자들의 눈부신 증산과 절약 투쟁에 의하여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났다.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지난 해 **공업 부문**의 기본 계획을 **117%로 초과 실행**하여 1956년에 비하여 **144%의 장성**을 가져 오게 하였다.

이것은 전쟁 전 **1949년도에 비하여 2.8배**의 장성으로 되며 해방 후 1946년부터 1949년까지의 4년간에 생산한 공업 총 생산액과 같은 것으로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인가!

우리 나라 농민들도 또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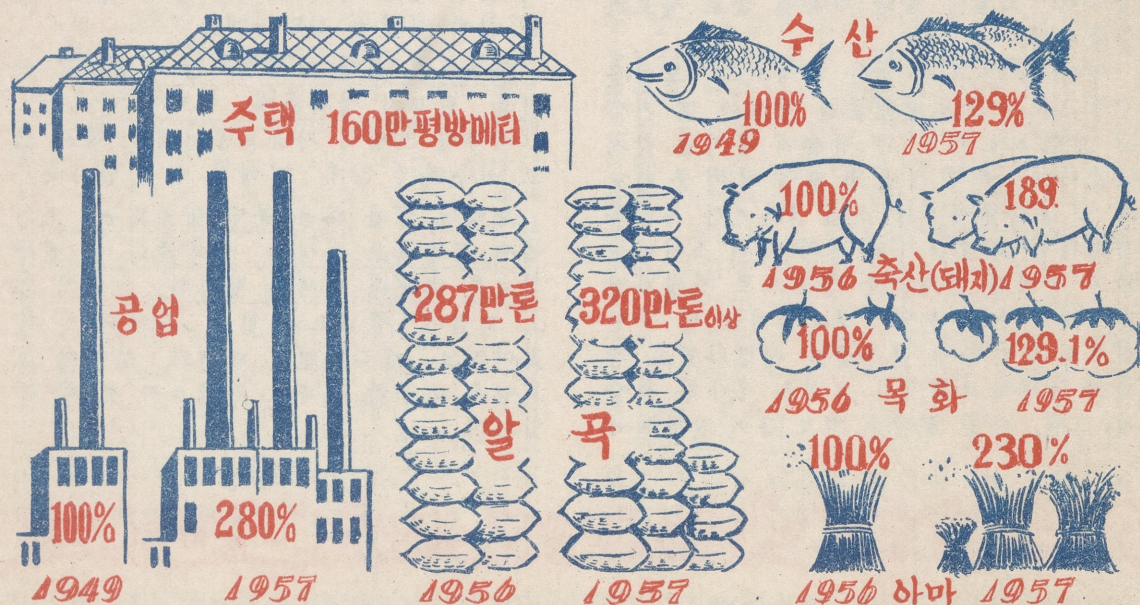
지난 해 농촌 경리에서는 수십년 동안에 처음 보는 석달 동안의 가물과 그리고 랭해와 수해의 혹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당과 정부의 가르침을 따라, 농민들은 **알곡 생산 290만톤의 국가 계획을 320만톤 이상으로 초과 실행**하였다. 이 밖에도 저류(감자) 120만톤 이상을 생산하였다.

더욱이 농촌 경리에서 놀라운 발전은 우리 나라 전체 농가 호수의 **95.6%가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여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하게 된데 있다.

수산 부문에서도 지난 해 전체 근로자들은 당 중앙 위원회 12월 및 4월 전원 회의 정신을 받들고 증산 과제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지난 해 우리 나라 **총어획고는 58만톤을 돌파**하여 새로운 기록을 쌓아 올렸다.

이리하여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유족하게 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또 다시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이 평균 10%** 더 높아지게 되였다.

지난 해 우리 나라 인민들이 이룩한 이 빛나는 성과들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시위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당과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된 인민들의 위력을 더욱 뚜렷이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옳은 정책의 결과 우리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어려운 첫 고비를 넘어서서 앞날의 더 큰 승리를 바라보며 전진하게 되였다.

1958년은 우리 나라 제 1차 5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서 둘째 해이다.

영광스러운 이 한 해는 또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과 생활의 전망을 약속해 준다.

1958년의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1957년 생산 실적에 비하여 **공업 총 생산액이 122.1%** 즉 5분의 1 이상의 장성을 예견하고 있으며 **알곡 총수확고는 101.8%**, **철도 화물 수송량은 113.2%**로 각각 장성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국영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액은 130.5% 약 3분의 1 이상의 장성을 예견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전망인가!

이 방대한 계획은 우리에게 지난 해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국 전체 인민들은 지난 해에 이룩한 빛나는 승리에 고무되면서 영광스러운 이 해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일떠 나섰다.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가리키는 길에서 전체 인민들은 새해의 방대한 계획도 반드시 넘쳐 수행하고야 말 것이다.

그 때에는 또한 우리 나라 전체 인민들의 생활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유족해질 것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1958년은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히 다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앞당기게 하여 줄 것이다.

사회주의는 세계에서 승리하고 있다

── 쏘련의 과학이 달성한 성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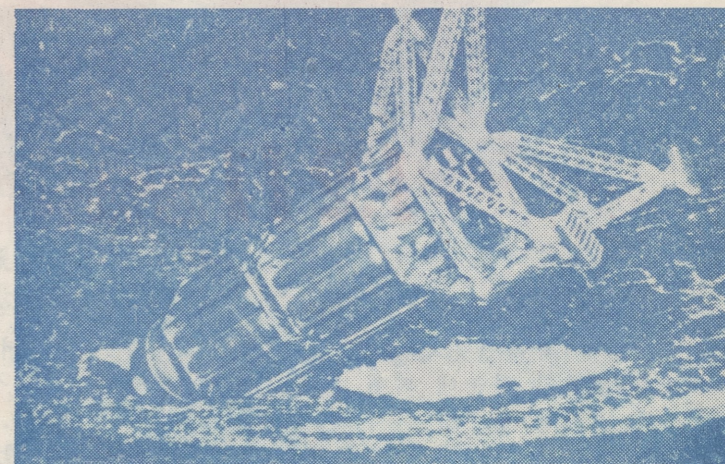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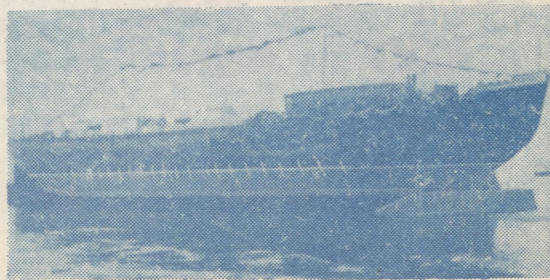
쏘련만이 대륙간 탄도 로케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어떤 먼 곳에라도 정확히 쏘아 보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놈들이 숨을 곳이란 지구 우에 없다. 쏘련은 이 위력있는 로케트로 인공 위성들을 발사하였다. 이렇듯 쏘련은 이 로케트를 인류의 행복을 위한 과학 발전에 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1 인공 위성과 제2 인공 위성은 쏘련의 과학 기술이 세계 제1이라는 것을 시위하였다. 이것은 달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다.

쏘련의 헤리콥터 《미 4호》는 속력에서 세계기록을 세웠으며 《미 6호》는 2천 4백메터의 높이를 날았으며 짐을 싣는데 미국의 배를 넘었다.

쏘련은 소리보다 더 빠른 초음속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뚜—104호, 뚜—110호, 《우크라이나》《모쓰크바》등 세계 어느 나라 비행기보다 최신식인 비행기들이 많다. (사진은《모쓰크바》려객기)

쏘련은 강력한 각종 로케트 무기를 가지고 있다. (사진은 10월 혁명 40주년 열병식에 나왔던 로케트 무기의 일부)

세계 최초의 원자 쇄빙선 《레닌》호는 4만 4천 마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세계 제1이라던 미국의 쇄빙선 《글라뜨체라》의 2배이다. 이 쇄빙선은 하루 45g의 연료(원자)밖에 쓰지 않으며 따라서 한 번 연료를 싣고 떠나면 400여일은 항구에 들리지 않아도 된다

쏘련은 달 나라로 갈 수 있는 발동기를 가지고 있다. 쏘련 과학자들은 1년 반~2년 내에 달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사진은 과학 보급 영화 《달 나라로 가는 길》의 한 장면)

40년 전보다 오늘은 이렇게 달라졌다

인구

1917

사회주의 국가 8%

식민지 예속 국가 38%

자본주의 국가 (형식상의 독립 국가도 포함)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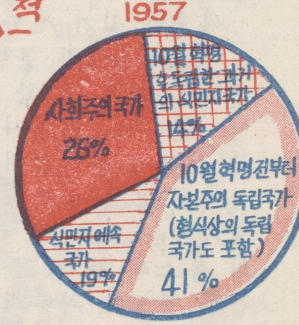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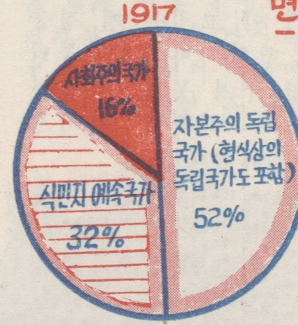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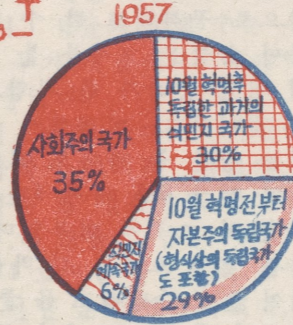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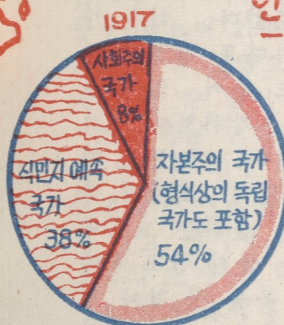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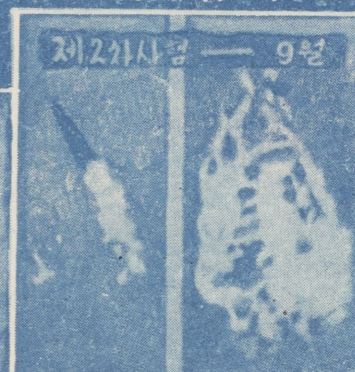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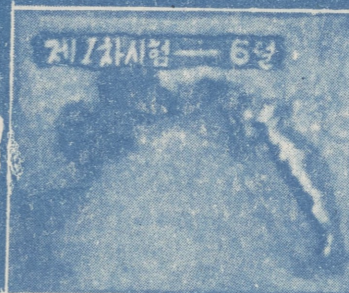
1957

사회주의 국가 35%

10월 혁명후 독립한 과거의 식민지 국가 30%

10월 혁명전부터 자본주의 독립국가 (형식상의 독립국가도 포함) 29%

식민지 예속국가 6%

면적

미국의 위신은 땅 바닥에 떨어졌다

미국은 중거리 로케트의 실험에서도 두번씩이나 실패하였다.

미국은 주먹만한 위성도 못 띄웠다.

1,211고지 전투 이야기

◇리 만 규◇

조국의 지도를 펼치면 물'결 거친 동해 바다를 막아선듯 남으로 길게 뻗은 태백산 줄기가 한눈에 띄워 온다. 그 한 중턱에 시선을 멈추면 마치 큰 나무에서 아치가 뻗어나듯이 태백산 줄기를 타고 나온 높고 낮은 수많은 고지들이 보일 것이다. 전세계에 영웅의 고지라 이름 높은 1,211 고지도 바로 여기에서 자기의 위풍을 온 천하에 자랑하며 솟아 있다.

싸움이 있기 전까지 이 고지는 메'짐승도 발을 붙이지 못할 험한 바위로 둘러싸이고 도끼'날 한 번 구경 못한 아름들이 참나무, 이깔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해'빛조차 새여들지 못하였다.

이름 모를 산새들은 철따라 피는 꽃을 즐기며 우짖고 메'짐승들은 어느 사냥'군의 총소리 한 번 들어 보지 못한채 자유롭게 뛰놀며 의좋게 살았다.

그러나 모진 전쟁의 불'길은 평화스러운 이 고지에까지 휩쓸었다.

1,211 고지는 지형상으로 보아 우리 편에나 적들에게나 중요한 고지였다. 적들은 이 고지를 빼앗음으로써 공화국 북반부를 손쉽게 점령하려고 날뛰였다. 미국놈들은 의례히 하는 식 대로 리 승만 괴뢰군을 총알 받이로 앞장에 세우고 1951년 여름에 이 고지에 물밀듯이 덤벼들었다. 그와 함께 미군 비행기들은 하늘이 까맣게 떠 와서 우리 편에 줄폭탄을 마구 퍼 부었다. 적들의 각종 포들도 입을 다물새 없이 포탄을 내뿜었고 땅크들도 떼를 지어 밀려 들었다. 그러나 고지를 지켜선 인민 군대 전투원들한테 적들은 매번 실패를 거듭하며 쫓겨 갔다.

약이 바싹 오른 적들은 더 참을 수 없게 되였다. 중대나 대대를 가지고는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련대와 사단을 내몰았다. 적들은 불개미 떼와 같이 고지에 달려 들었다. 그러나 적들은 그 때마다 무리 주검을 남기고 돌아 갔을 뿐이다.

인민 군대 앞에서는 단꺼번에 떼를 지어 공격해도 소용없고 흩어져 사방으로 공격하여도, 겹겹히 가로 줄을 지어 파도식으로 공격해도 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놈들은 고지를 불 바다로 만들면 우리 인민 군대가 한 사람도 붙어 있지 못할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였다. 고지는 정말 불 바다로 되였다. 놈들은 하루에 평균 3만 내지 4만 발의 포탄과 폭탄을 이 고지에 퍼부었다. 불타는 고지에서는 낯선 토끼도 갈 바를 몰라 전호 속에 뛰여 들고 다람쥐도 몸 둘 곳을 못 찾아 전사들의 품안으로 뛰여 들었다. 한 그루의 나무도 뿌리채 뽑히워 모조리 타버리고 바위도 무너져 가루가 되는 고지에는 오직 조국을 사랑하는 붉은 심장들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그들은 《일보도 퇴각하지 말라!》는 최고 사령관 김 일성 원수의 명령을 지켜 《한 치의 땅도 원쑤들에게 내여 주지 말라!》고 서로 서로 맹세를 다지면서 일분 일 초를 아껴 방어 진지를 팠다.

고지를 빼앗으려고 눈이 뒤집힌 적들은 계속 공격해 오면서 우리가 파 놓은 진지를 폭격과 포 사격으로 자주 무너뜨렸다. 그러나 전투원들은 삽이 닳아서 밥주걱만큼 되였을 때까지도 더 많은 적을 잡기 위하여 굳은 바위를 깎아 내고 돌을 바수어 내며 진지를 뚫었다.

그러나 고통은 그것 뿐이 아니였다. 여름 가을내 긴 장마와 더욱 심해진 적들의 폭격으로 길이 막히고 다리가 끊어져 기차도 자동차도 다닐 수 없었다. 고지에는 무기도 탄약도 식량도 끊어졌다. 그러나 어느 한 전사도 락망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은 타다 남은 넝쿨과 그슬린 풀숲에서 머루와 다래를 따다 먹고 며칠 동안은 반 이삭의 옥수수를 나누어 먹으면서 전호를 팠다. 떨어진 탄알은 적들의 시체에서 꺼내 오고 그것마저 떨어지면 바위'돌을 굴려뜨려서 달려 드는 적들을 쓸어 눕히고 그것도 모자라면 적들이 가까이 기여 온 다음에 총창과 총탁으로 까 부셨다. 이러는 사이에 후방에서 오는 길도 열려졌다.

전사들은 그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그 해 9월 중순과 하순에 와서 적들은 더욱 발악하였다. 음흉한 놈들은 고지의 옆으로 기여 들어 뒤'면을 막고 우리들을 몽땅 잡으려 하였다. 적들의 군대 수는 우리보다 더 많았고 무기 갖춤새도 우리에게 비할 수 없이 좋았다.

고지에는 위험이 닥쳐 왔다. 적탄이 비'발치는 전호 속에서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전투원들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조국의 고지—1,211 고지를 목숨으로 지키자고 당과 조국과 인민 앞에 맹세하였다.

어려운 전투마다에는 언제나 로동당원들이 앞장을 서고 민청원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영웅적으로 싸워서 영웅의 고지라고 불리우는 1,211 고지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피로써 아로 새긴 이야기가 많다.

중기 사수인 박 진태 동무는 적의 폭탄에 두 다리를 짤리우고서도 《나는 이 고지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당 앞에 다진 맹세를 어길 수 없다. 나를 그냥 싸우게 해 달라! 중기도 자동총도 얼마든지 쏠 수 있다》 하면서 상처에 붕대를 감으려는 위생 지도원의 말도 듣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 위생 지도원 김 영진은 고지 중턱 전호에서 12명의 부상병를 구급 치료하던 중에 갑자기 적이 기여 오르므로 부상병들을 은폐시키고 혼자 싸우려 하였다. 그러나 부상병들은 《우리는 아직 살아 있다. 살아서 적에게 포로되는 것보다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낫다》고 웨치면서 덤비는 적들에게 수류탄 벼락을 안겨 목사발을 만들었다.

소대장 김 한식 동무는 총탄과 수류탄이 떨어지자 바위'돌을 굴려뜨려서 단꺼번에 숫한 적을 눕혔고 분대장 오 순선 동무는 적을 맞받아 나아가 원쑤의 경기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진지를 고수하였으며 중기 사수 김 시영 동무는 혼자서 2백여 명의 적을 잡았다.

수많은 전투원들은 원쑤들이 뿌린 수류탄을 날래게 되집어 뿌려서 적들의 가슴패기에 안겨 주었다.

10월 27일에 있은 통신병 장 태진 동무의 이야기는 더욱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적의 포 사격과 항공 폭격에 통신선이 여러 군데 끊어졌을 때다. 전투 지휘는 매우 곤난하게 되였다. 이걸 본 동무는 벌써 여러 군데 부상을 입어 온 몸이 피투성이 되여 가지고도 비오듯 퍼붓는 적탄 속을 뛰여 다니며 통신선을 이었다. 그러나 뒤덮인 흙 무더기 속에서 간신히 끊어진 통신선을 찾아 가지고 선 끝을 입에 물고 있으려 할 때 갑자기 적 폭탄이 가까이에서 터졌다. 동무는 어쩔 사이 없이 그만 흙더미 속에 묻히우고 말았다.

동무들이 달려 가서 흙을 파 헤치고 그를 구출하였을 때 그는 통신선을 입에 문채《통화! 통화는 어떻게 되였소?》하며 자기의 아픔보다 장관의 명령을 먼저 생각하였다. 동무들이 그를 끌어 안고 통화가 제대로 됐다고 했을 때에야 그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눈을 감았다. 전류가 그의 몸을 통하게 되면서 위급한 통신은 계속되였던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리 수복 영웅이 적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는 이야기도 이 때에 있은 일이다.

1,211 고지 앞 동남 쪽에 있는 무명 고지는 일시 적들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 편에 항상 위협으로 되였다. 때마침 상부에서는 그것을 빼앗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임무였다.

전투는 시작되였다. 적의 화구에서는 미친듯이 불을 뿜었다. 적들의 심한 포화는 우리 인민 군대의 전진을 더디게 했다.

《나는 반드시 고지를 점령하고야 말겠다! 나의 생명도 귀중하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전투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리 수복 영웅은 습격 조장으로 나갔다.

리 수복 영웅은 두 곳의 부상을 입으면서 화구 턱밑까지 간신히 기여가 두 개의 수류탄을 화구에 던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명중하지 못하였다. 시간은 더 지체할 수 없게 하였다. 조국의 명령을 목숨으로 수행해야 한다. 리 수복 영웅은《돌격 앞으로!》라고 웨치면서 뛰여나가 19세의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았다. 적의 화구에서는 불이 멎었다. 무명 고지는 리 수복 영웅과 같은 젊은 애국자들의 피로써 쟁취되였다.

영웅의 고지—1,211 고지에 남긴 용감한 인민군 아저씨들의 이야기는 백 날 천 날을 두고도 다 하지 못하리 만큼 끝없이 많다.

인민군 아저씨들은 바위를 깊이 뚫고 적의 폭탄도 포탄도 허물지 못하는 튼튼한 진지를 만들었다. 그 안에는 잠을 잘 수 있는 병실도, 식당도, 구락부도 있었다. 전사들은 그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도 나무를 깎아 만든 악기를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적의 포탄 깍지로 대야며 밥 그릇이며 그리운 것이 없이 만들어 놓고 항상 명랑하게 생활하였다. 이렇게 적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하고 대담하고 슬기로운 인민 군대를 어떤 적이 이길 수 있겠는가!

어찌나 무서웠던지 적들은 이 고지를《상심령》이라고 부르며, 싸움이 붙기 전부터 사시나무처럼 떨었고, 싸우면 살아 돌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 앞 깊숙한 골짜기를《함절골》이라고 하면서 치를 떨었다. 미처 1,211 고지에 기여 들지 못하고 뒤에 남아 있던 놈들도 우리의 명중포 사격을 맞아《인민 군대의 포탄에는 눈알이 있다》고 하며 질겁하였다. 정말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괴뢰군에서도 악질로 이름이 난 백골 부대도 처음에는 자신있게 덤벼 들었다가 그 이름 그 대로 백골이 되여 버리고 미국에서 이름이 난 장군들과 부대들도 서뿔리 공격해 왔다가는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다.

자랑 많은 영웅의 고지—1,211 고지는 오늘도 인민군 아저씨들과 함께 자기의 위훈을 빛내며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 튼튼히 서 있다.

一

무더운 여름철이였습니다.

학교 마당 기슭에 있는 잎이 싱싱한 푸른 나무 가지에서는 매미와 쓰르라미들이 날아와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소년단원들이 빙 둘러 앉아 재미있게 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소리가 났습니다.《또 비행기다!…》소년단원들은 저마다 빨리 방공호로 뛰여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습 싸이렌은 나지 않았습니다.《참 이상하구나…》.

생각이 빠른 소년단원들은 곧 그것이 우리 공화국의 씩씩한 젊은 매들임을 알았습니다.

해'솜같은 뭉게 구름이 둥둥 떠 도는 하늘에는 얄미웁게 낮게 싸다니던 미국놈 비행기와는 달리 높이높이 떠서 우리 비행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두 대씩 짱을 지은 우리 비행기는 보기에도 가슴이 후련하게 쏜살같이 남쪽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날 우리의 비행기들은 평양 상공을 지나 아담한 마을 우로 날았습니다.

날개를 흔들어 보이는듯 이따금 해'빛에 반짝거리는 우리 비행기 편대 속에는 공화국 영웅 김 기옥 비행사 아저씨도 날아 가고 있었습니다.

구름을 헤치고 공기를 가르면서 맨 앞에서 날아 가는 것이 바로 김 기옥 아저씨였지요.

아저씨는 땅에서는 뽈도 잘 차고 씨름도 잘 하고 이따금 우스운 이야기도 잘 했지만 하늘에서는 깜짝 헛눈도 안 팔았습니다.

대대장이던 김 기옥 아저씨는 적기를 잘 살피라고 다른 비행사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앞장서 날았습니다.

조종간을 쥔 손아귀에는 더운 김이 풍기고 검은 눈'섭 아래에는 어글어글한 눈'동자가 반짝거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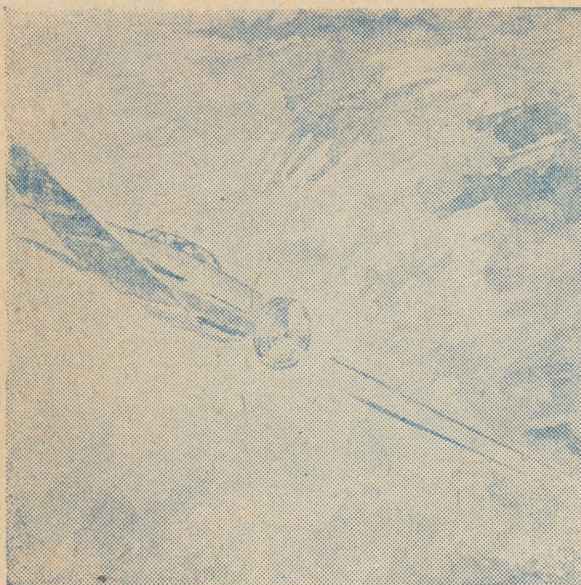
정신을 가다듬고 날개 아래를 살피면 푸른 강물이 허리띠처럼 길게 흘러 가고 기차'길이 지나 가고 도로가 지나 가고 아름다운 산들과 푸르른 논밭, 살기 좋은 마을들과 흥성거리는 도시가 지나 가고 있습니다.

김 기옥 아저씨는 오래 아래를 내려다 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의 유리창 밖으로 지나 가는 구름짬 넘어 멀리 앞과 옆만 똑바로 살피면서 날았습니다.

비행기의 크고 작은 기계 바늘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제 자리를 돌면서 비행기가 날아 가는 방향과 그 밖에 김 기옥 아저씨가 바래는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알려 주었습니다.

김 기옥 아저씨는 비행기를 더 빨리 몰았습니다. 비행기는 노한듯이 막 내달렸습니다.

눈 깜짝할만치 짧은 시간에 어느덧 우리 비행기의 편대는 서울을 지나 남쪽으로 날아 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날아 가는 동안 밉살스러운 적의 비행기들은 한 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놈들 나타나기만 해 봐라, 모조리 불살라 버릴테다》.

이렇게 아저씨가 생각할 때 벌써 땅 우에는 수원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원 상공에 도착, 주의하라!》. 김 기옥 아저씨는 라디오로 말하였습니다.

이 때였지요. 갑자기 우리 비행기 편대 앞에는 시꺼먼 원쑤들의 비행기 떼가 보였습니다.

《주의! 적기다!》 얼른 보기에도 적기는 거의 스무 대나 되였습니다.

몸뚱이가 미욱하게 크고 우둔하게 보이는 비—29 폭격기들이 주른하게 날아 오고 그 우에서는 메뚜기같이 생긴 전투기들이 쉬파리 새끼들처럼 앵앵거리며 날아 돌아 갔습니다.

김 기옥 아저씨는 영웅 리 동규 아저씨와 함께 원쑤들의 크고 미련하게 생긴 비—29 폭격기들을 불 태워 버리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쉬파리같은 적 전투기들이 하루살이들처럼 달려 붙으려고 하기에 우리의 비행기들은 원쑤의 그 큰 놈을 공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용감한 김 기옥 아저씨는 조금도 덤비지 않고 정신을 가다듬어 적들을 주의 깊이 노리다가 마구 돌아 다니는 적 전투기 한 대를 향해 번개같이 달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놈은 혼이 나서 우로 날아 올타 도망치려고 덤비고 다른 한 대가 엉뚱하게 아저씨의 앞으로 맞받아 날아 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우둔한 놈아……》 김 기옥 아저씨는 적기가 마주 향해 날아 오는 것을 보자 그 놈을 맞쏘아 떨구어 버릴 결의로 곧바로 적에게 대들었지요.

재빠른 우리 비행기가 화살같이 달려 들자 겁을 집어 먹은 적기는 검은 배통을 내 보이면서 우로 날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조준경으로 적기를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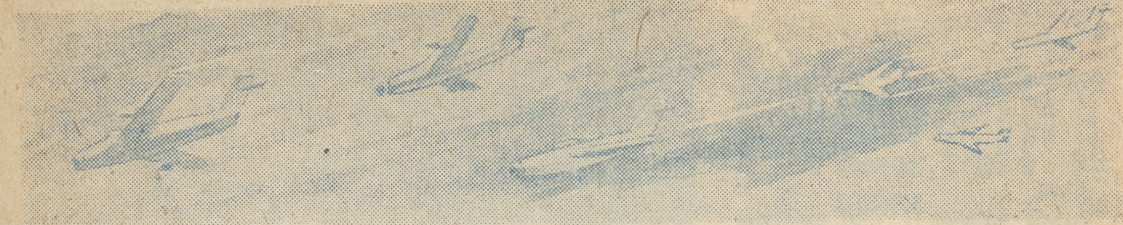
피던 아저씨는 조준경 속에 적기가 똑바로 나타나자 재빨리 사격 단추를 눌렀습니다.

《뚜룩 뚜르륵 뚜룩……》. 아저씨의 비행기에서 시뻘건 불꼬리와 함께 포탄이 쏟아져 나가더니 밉광스럽던 적기에서는 검붉은 불'길이 일어 났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둥이를 뒤집어 쓰고 적기는 기웃거리다가 드디여 속 씨원하게 공중에서 쾅 터져 박살이 되고 말았지요.

얼마나 통쾌하고 씨원한 일이였겠어요. 우리의 부모들과 형님, 누나들을 죽이려고 날뛰고 우리의 집을 불 태우고 거리와 마을들을 폭격하려고 덤비던 원쑤를 죽이고 말았으니……

그러나 아저씨에게는 이런 생각을 할 짬이 없었어요. 아저씨는 얼른 또 사방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리 동규 아저씨도 적기 한 대를 쏴 떨구고 있었습니다.

두 대의 적기가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더니 쉬파리 같은 적 전투기들은 사방으로 뺑소니 쳐 날아 가고 크고 미련한 적

비—29 폭격기들은 갈팡질팡 덤비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로구나!……》. 아저씨는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적 비—29 폭격기에로 쏟아지듯 미끄러져 내리 꽂혔습니다.

《뚜르륵 뚜룩 뚜르륵……》《쾅쾅!》 큰 포와 작은 포는 또 다시 불'줄기를 토하였습니다.

그런데 크게 생긴 적 폭격기는 움찍도 안 하고 그냥 동켠 바다 쪽으로 달아 나려고 앞 대가리를 돌리는 것이였습니다.

아저씨는 분하고 성이 나서 이를 악물고 또 한 번 휙 날아 돌아 가다가 재차 내리 꽂혔습니다.

요란한 포'소리는 하늘을 뒤 울리고 시뻘건 불탄은 적 폭격기를 향해 곧바로 날아 갔습니다.

그런데도 적 폭격기는 까딱도 안 하고 그냥 날아 가고 있지 않겠어요.

이 일을 어찌하랴? 아저씨의 이마에는 구슬같은 땀 방울이 소록소록 맺히고 입술은 방금 터질듯이 꽉 물려 있었습니다.

《갈매기, 갈매기, 엄호하라……》 아저씨는 리 동규 아저씨에게 라디오로 부탁한 다음 적 폭격기를 맞 쪼아 없애 치울 작정으로 다시 적 폭격기를 향해 공격해 내려 가려 하였습니다.

이 때였지요. 《적기가 떨어진다!》. 라디오의 레시바에서는 리 동규 아저씨의 반가운 목소리가 울려 왔습니다.

《그렇다! 적기가 떨어지누나》. 아저씨는 마음 속으로 크게 소리쳐 만세를 부르면서 떨어져 내려 가는 적 폭격기의 큰 몸뚱이를 조금도 놓치지 않고 지켜 보았습니다.

두 차례나 든든히 얻어 맞은 적 폭격기는 더러운 날개에서 삼'단같은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바다 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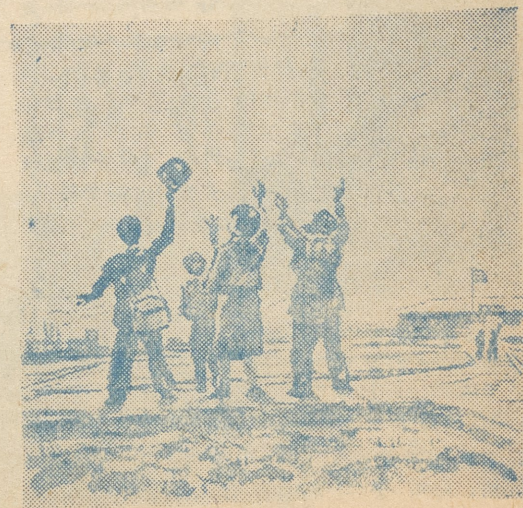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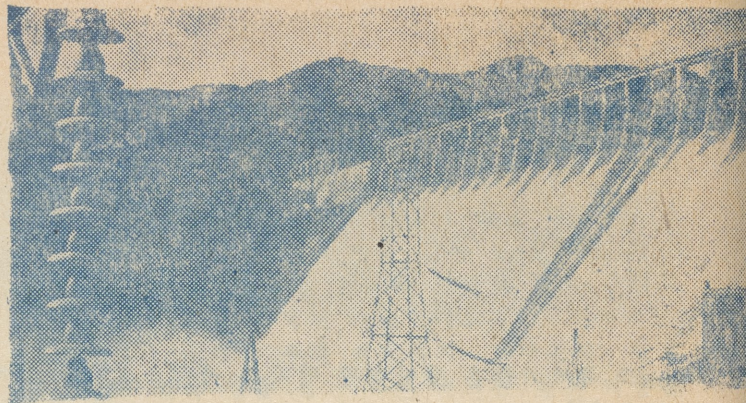
이것을 본 적의 다른 폭격기들은 제 놈들도 얻어 맞을가봐 질겁하여 여기 저기로 뿔뿔이 달아 나고 말았습니다.

아저씨는 편대를 지휘하여 기지로 다시 돌아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비행기들이 적기를 떨구고 날개를 반짝이며 돌아 올 때 학교의 소년단원들과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손을 높이 흔들어 반겨 주었습니다.

용감한 김 기옥 아저씨는 이 날의 공중전이 있은 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싸움에 나가 여러 대의 적기를 떨구었습니다. 우둔하고 미욱한 적 비—29 폭격기 두 대와 적 쌕쌔기 한 대, 적 쌍발 폭격기 두 대, 무스 땅크 한 대, 모두 합하여 김 기옥 아저씨는 적의 비행기 여섯 대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김 기옥 아저씨는 비행사들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영웅이 되여 그의 가슴에는 금별 메달이 빛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비행기에는 여섯 개의 오각별이 그려졌습니다.

《우리 나라의 려행》

평안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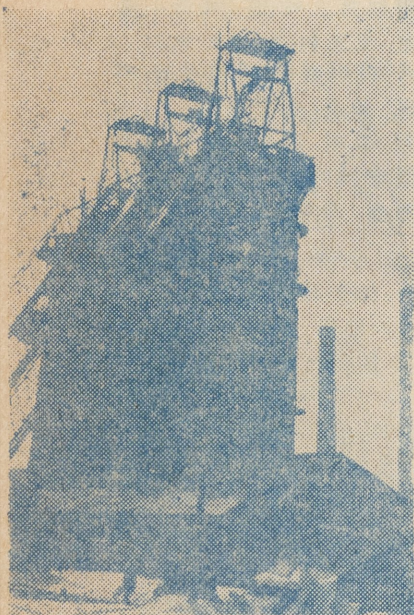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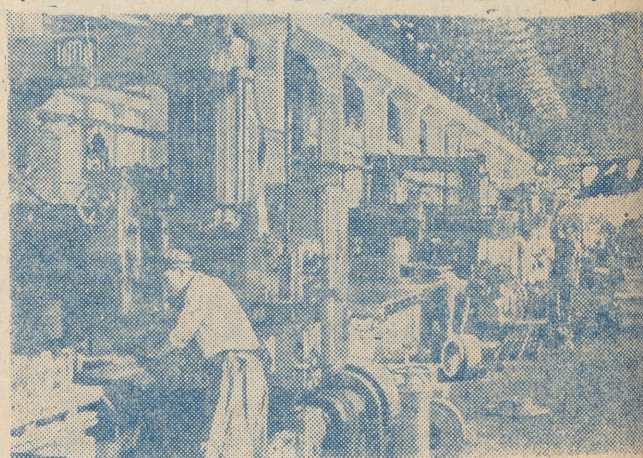
북쪽에 압록강 서쪽에 황해를 두고 형제 나라 중화 인민 공화국과 접하고 있는 곳 우리 나라 서북쪽 맨 끝에 놓여 있는 땅—여기가 바로 평안북도이다.

이 곳에는 수력 자원을 비롯한 지하 자원들이 가는 곳 마다에 가득 차 있고 기름진 땅 우에는 오곡이 물'결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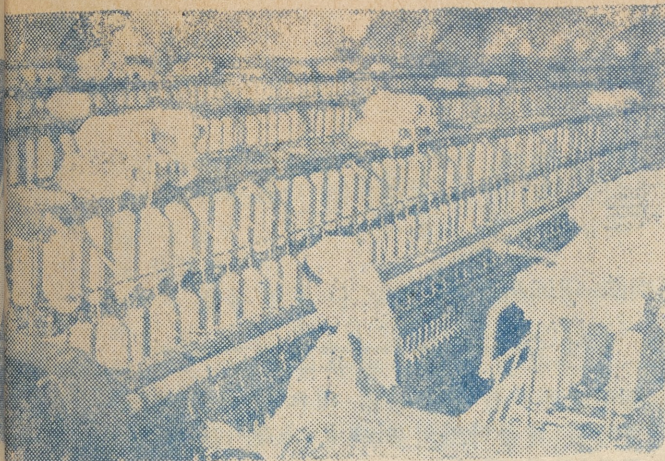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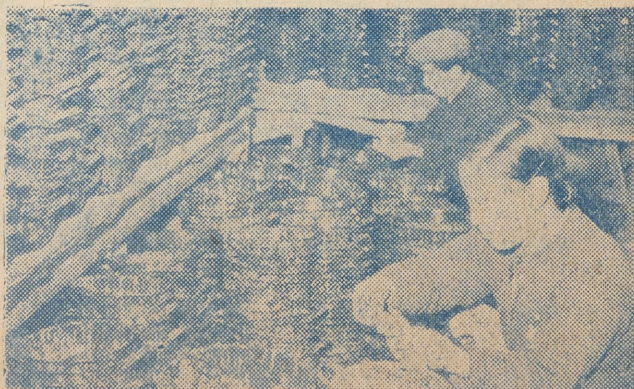
그리고 가지 가지 기계들을 생산하는 공장들과 생활 필수품들을 만들어 내는 공장들로 새로운 공장 지대를 가진 평북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 큰 역할을 놀고 있다.

수풍 발전소는 70만 키로왓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발전소이며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발전소이다.

이 발전소의 전류는 우리 나라의 공장들과 농촌에로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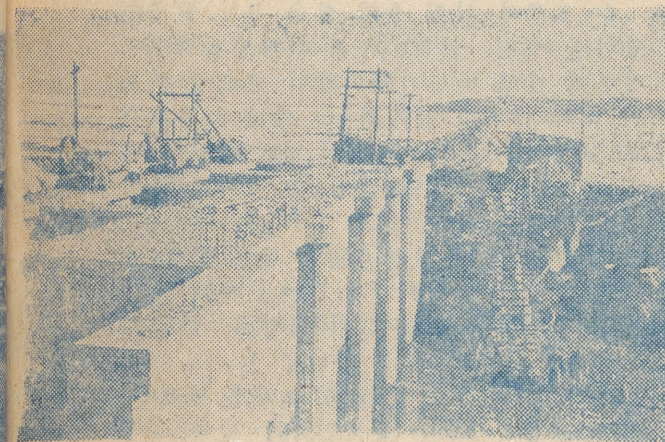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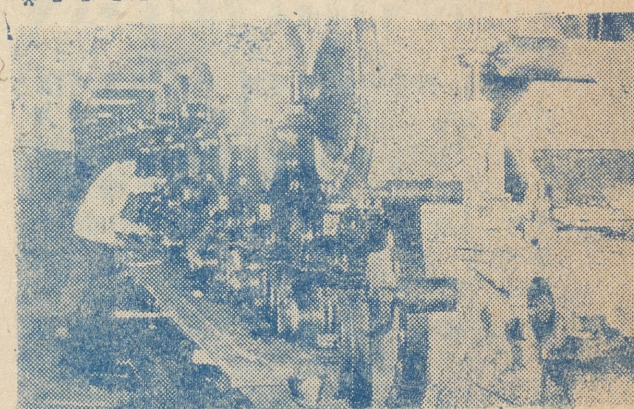
지난 전쟁 시기 미제의 폭격에 의하여 큰 상처를 입었던 이 발전소는 쏘련의 원조를 받아 더욱 훌륭히 복구되였다.

청수 화학 공장에서는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질좋은 카바이트를 만들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카바이트로 다시 합성 섬유(옷감)를 만들어 내는 중간 실험 공장이 완공되여 간다.

북중 기계 공장에서는 지금 엔징, 모타 등 열구 기관들이 생산되고 있다. 앞으로 엑쓰까와똘을 비롯한 대형 일반 기계들도 만들게 된다.

이 밖에 평북도에는 락원 기계 공장, 구성 광산 기계 공장, 운산 공구 공장 등 새로운 기계 공장 지대가 창설되고 있다.

형제 나라 중국의 원조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신의주 법랑 철기 공장에서는 세수 대야, 양재기, 남비 등 각종 법랑 철기들을 다량 생산하고 있다.

신의주 팔프 공장과 신의주 제지 공장은 길주 팔프 공장과 함께 우리 나라 제지 공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머지않아 신의주 팔프 공장에서는 갈로 인견 팔프도 생산하게 된다.

구성 방직 공장은 우리 나라에서 두번째 가는 큰 방직 공장이다. 여기에서는 지금 인민들의 요구에 알맞는 질좋은 옷감 (면직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 밖에 박천 견직 공장, 녕변 견직 공장, 신의주 모방직 공장들에서는 《약산단》 《모본단》 양복천 등의 고급 천들을 짜내고 있다.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하여!
—곽산 저수지 언제 공사—

평북도의 농촌에도 가는 곳마다에 농업 협동 조합들이 조직되여 농민들의 생활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평북도는 작년에 알곡 57만 5천톤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나라에서 준 계획을 8만톤이나 넘쳐 낸 것이며 일제 때보다 18만 톤이나 더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평북도내 농업 협동 조합들에는 년말 분배에서 호당 알곡이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인 2톤 51kg, 현금은 1만 4천 5백원씩이나 차례지게 되였다.

평북도는 서해 전체 어획고의 60%를 차지하는 많은 물'고기들을 잡고 있다.

주요 어장은 룡암포, 철산, 곽산, 정주 등인데 여기서는 주로 조기, 갈치, 새우, 달재, 민어 등을 잡아 낸다.

이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다사도항을 준설하고 이 곳 많은 섬들에 어로 근거지를 창설하게 될 것이다.

평북도는 오늘 사회주의 건설에 힘차게 나서고 있는 근로자들의 눈부신 증산 투쟁에 의하여 더욱 더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너희들의 말이 옳다

——평남 남포 6중 학교 대에서——

◇최 옥 선◇

대 열성자 모임을 끝내고 운동장을 나서며 2분단 열성자들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우리 분단에선 어떻게 하면 좋을가?》하고 분단 위원장인 태성이가 먼저 말했다.

《이자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들려 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분단 동무들에게 들려 주고 우리가 실지 그 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자…》하고 분단 열성자인 정일이가 제기했다. 그러자 《그래, 그리구 개인 장사를 하는 정환이, 영일이네 집들을 찾아 가서 이야기도 해 드리구》,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내용으로 한 벽보두 만들구》하고 저마다 한 마디씩 의견을 내놓는다.

그러나 명섭이만은 기운없이 《좋아》하고 대답할 뿐이였다. 명섭이 얼굴을 바라보던 동무들은 그 때야 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명섭이어머니를 생각하고 서로 말없이 바라보았다. 헤길에 나서게 되자

동무들은 제각기 자기 집으로 향하고 명섭이와 태성이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묵묵히 걸어 갔다.

《명섭아! 너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하고 태성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명섭이는 한참 말이 없더니 《응 어머니 때문에 그래… 해방 전부터 장사에 재미를 어서 남을 속여서라두 돈 벌 생각만 하구, 내가 암만 말해두 소용이 없어》하며 말끝을 흐리였다.

《어른들이 어린 우리 말을 듣고 별안간 달라질 수는 없어,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 들으실 때까지 해야지》하고 태성이는 작년 여름까지도 남을 속여 가며 광주리 장사를 하던 자기 어머니가 직장에 들어 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였다.

명섭이는 태성이의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오늘 저녁엔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해 볼테야》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너의 어머니도 잘 말씀 드리면 될거야. 우리도 힘껏 도와 줄테니 잘 말씀 드려봐》하며 태성이는 갈림'길에서 명섭이와 헤여졌다.

명섭이가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와 누나는 장에서 들어와 돈을 세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니?》하고 책보를 받아 주시던 어머니는 《오늘 장사가 잘 됐오니 명섭이 책 가방도 하나 사 줘야겠다》하며 기분이 좋아하시였다.

《무슨 장사가 그렇게 갑자기 잘 됐어요》하고 명섭이가 묻는 말에 어머니는 국영 상점에서 사온 굴젓에 물을 좀 타서 팔았더니 곱으라졌다는 것이였다.

이 말을 들은 명섭이는 더욱 괴로웠다. 자기 배만 불리려고 남을 속이려는 것은 전체 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건설에 해를 준다고 하시던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되였다. 명섭이는 당장이라도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해 드리고 싶었으나 벌써부터 어머니의 일에 참견한다고 노여워하실 것만 같아서 잠자코 있었다.

저녁 밥을 먹고 난 명섭이는 문학 시간에 배운 리 기영 선생님의 소설 《쥐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읽어 드릴 것을 생각했다. 명섭이는 어머니가 부엌일을 끝내고 방에 들어 오실 때까지 책을 읽고 있었다. 이슥하여 어머니가 바느질을 시작할 때 책을 들고 어머니 곁으로 갔다.

《어머니! 재미 있는 소설 읽어 드릴가요》하며 어머니 얼굴을 바라 보았다.

《그래라》하고 대답하시는 어머니는 혼자'손으로 고생하며 아들을 기른 보람을 느끼는듯 퍽 기뻐하시였다.

명섭이는 《쥐 이야기》를 줄줄이 읽어 내려 갔다.

귀를 기울여 듣던 어머니는 《그 놈의 쥐들 흉칙하다. 자기들만 도적놈이 아니라구?…》하고 웃으시였다.

《어머니! 쥐의 말이 옳지요 뭐, 김부자놈이 일은 안하고 수돌이네가 농사 지은 것을 빼앗아 가니 그것이 쥐보다 더한 도적놈이지요》. 명섭이는 한참 말을 그쳤다가 《어머니! 어머니가 남의 눈을 속여 장사하는 것도 남의 돈을 뺏는 것이예요》하고 웃으며 말했다.

《자식 공부시켰더니 어미더러 하는 말버릇이 좋다》하고 어머니는 성을 내시였다.

《그럼 국영 상점에서 굴젓을 사다 물타서 속여 파는 것이 남의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하고 명섭이는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게 다 너희들을 잘 키우느라고 하는 일이지, 하구 싶어 하냐》 하고 말씀하시였다.

명섭이는 안타까운 낯으로 그런 일은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남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모두 행복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일하는데 어머니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 학교에 가면 동무들을 보기가 부끄럽다고 말하였다.

명섭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번에 명섭이가 안타까와하는 말에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이튿날 아침 명섭이가 학교에 가려고 할 때 어머니는 《글쎄 네 말대루 남을 속이는 장사긴 하지만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니, 너의 매부될 사람도 자꾸 그러지…정

우리들의 그림 페지

말과 행동

자강도 강계시 서산 중학교

한 병일 그림

말 속이 상하누나》하는 것이였다.

《그러게 조합에 들어 가면 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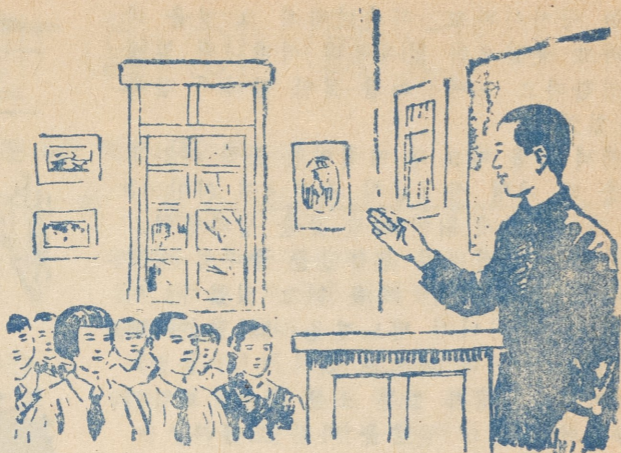
《글쎄 조합에 들어 가면 지금만 침 리가 나겠는지》. 어머니의 이 말씀은 이 때까지 고집 쓰던 때와는 달랐다.

이 날 아침 학교에 간 명섭이는 태성이를 만나서 자기 어머니의 고집이 이제는 좀 가라앉은듯 하나 아직도 협동 조합에 드는 것이 정말 좋을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럼 우리 분단 열성자들이 어머니에게 조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들려 드리도록 하자》하고 태성이는 기뻐하며 분단 열성자들과도 의논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분단 열성자들은 상업 관리소 아저씨들을 찾아 가서 식료 생산 판매 협동 조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 왔다. 밤에 명섭이어머니를 방문한 분단 열성자들은 식료 생산 판매 협동 조합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맛 있는 식료품을 만들어 팔면서 국영 상업을 도우며 또 일한만큼 넉넉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였다.

《너희들의 말이 옳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합에 들어 가시겠다고 하시였다.

며칠 후 분단에서는《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 돕자》라는 제목으로 분단 모임을 가지였다.

명섭이는 이 때 분단 동무들 앞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자기 어머니가 남을 속여 가며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주의 건설에 해를 주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식료 생산 판매 협동 조합에 들어 가게 된 것은 자기 힘보다도 분단이 도와 준 힘이 컸다고 말하면서 부모님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나서도록 전체 분단 동무들이 한 마음이 되여 돕자고 하였다.

뒤이어 홍 정환, 류 영일, 한 정일 동무들도 자기 부모들이 직장과 협동 조합들에 들어 간 이야기를 하였다.

분단 모임은 앞으로 연예 푸로를 준비하여 부모들에게 보여 드리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전망을 계속 선전하자고 약속했다.

우리들의 그림 페지

얼음 우에서

원산 12중 리 재용 그림

인민군 아저씨들에게 영광을 드리자!

영웅의 군대—조선 인민군은 창건 열 돐을 맞이했습니다.

조선 인민군이 걸어 온 지난 10년은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10여년간 일제와 싸워 이긴 김 일성 원수의 항일 유격 부대의 자랑찬 애국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인민 군대는 미제와 그 주구 리 승만 도배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원쑤를 물리치고 사회주의 조국을 영광스럽게 수호했습니다.

인민군 아저씨들은 미제를 괴수로 한 16개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싸워 이겼습니다. 전쟁 3년간 1,093,839명의 적 장병을 살상 및 포로했으며 12,224대의 적 비행기를 격추 격상 및 로획했습니다. 그리고 3,064대의 땅크, 191대의 장갑차, 564척의 함선과 선박, 7,695문의 각종 포, 13,350대의 자동차를 격파 또는 로획하는 막대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세계 인민들로부터 미제는 《종이 범》이라고 불리게 되였고 우리 인민 군대는 영웅의 군대라고 불리우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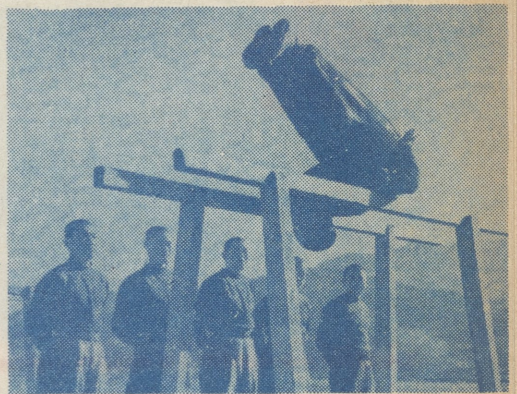
오늘 우리 인민 군대는 사회주의에로 꽃피여 가는 조국을 지켜 평화의 방선을 굳게 지켜서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 군대가 평화의 방선을 튼튼히 지키고 있는 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조국을 그 어떠한 원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인민군의 하루 생활

강철같은 몸으로 단련된 아저씨들은 쌍봉, 등반봉, 철봉, 못하는 체육이 없습니다.

날이 훤히 밝아 오면 하루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기상 라팔이 울려 옵니다.

인민군 아저씨들의 하루는 조기 체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승리의 기록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에 있는 유화들에서)

1,211고지—하루에도 적의 수만 발의 포탄과 폭탄으로 하여 이 고지는 11메터나 낮아졌답니다. 바로 이 고지에서 우리의 용감한 인민 군대 아저씨들은 수백 수천 번에 걸치는 적의 발악적인 진공을 물리치고 원쑤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고지는 지금 영웅의 고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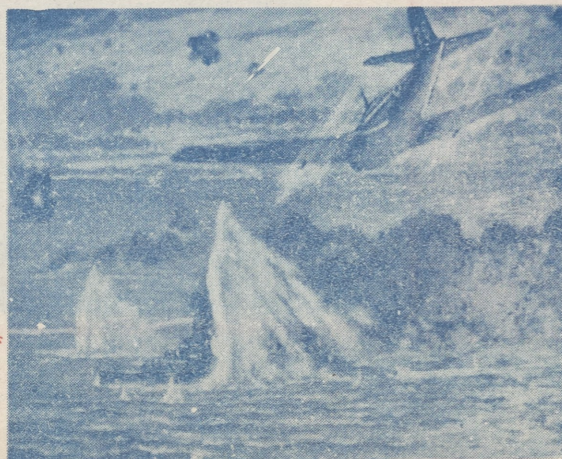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매일 군사 상학도 합니다. 군사 상학에서는 각종 무기를 다르는 법을 배우며 훈련을 하며 백전 백승의 군사 과학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인민 군대를 애국주의와 용감성과 과학 기술을 배우는 청년들의 학교라고도 부릅니다.

(사진 아래 협동 훈련, 다음 페지 무전 기술을 배우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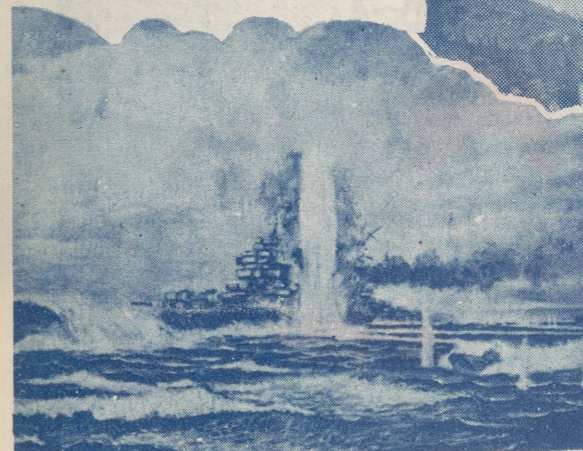
정치 상학—이것은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의 영광스러운 애국적 혁명 전통을 배우며 슬기로운 우리 선조들의 애국 전통을 본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용감한 매들은 《하늘의 요새라고 부르는 적 비—29를 비롯하여 수많은 적 비행기를 격추했습니다. 공중전, 적진 습격, 적함 습격에서 공화국의 젊은 매들은 빛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

351고지—단 엿새 동안에 15명의 영웅을 낳은 이 고지에서 인민군 용사들은 한 치의 땅도 원쑤들에게 내여 주지 말라는 당과 수령의 부름을 목숨으로 지켜냈습니다.

적 비행기 11대를 떨구어 2중 영웅의 칭호를 수여 받은 김 기우 형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전쟁 기간에 비행기 사냥군들은 우리의 마을과 학교에 마구 폭탄을 퍼붓던 원쑤놈들의 비행기를 수없이 잡아 없앴습니다.

즐거운 시간입니다. 어떤 곳에서나 짬만 있으면 아저씨들은 춤과 노래로 휴식을 이렇게 즐깁니다.

소년단원 동무들이 보낸 편지는 이렇게 아저씨들을 기쁘게 해 줍니다.

단 4척의 어뢰정으로써 적 중순양함 한 척을 주문진 앞 바다에서 침몰시키고 다른 한 척을 격파한 빛나는 전투 위훈을 세운 김 군옥 어뢰정대를 비롯하여 바다의 용사들은 전쟁 기간 적함 140여 척이나 격침했습니다.

승리의 날—1953년 7월 27일 고지 마다에서는 승리의 만세 소리가 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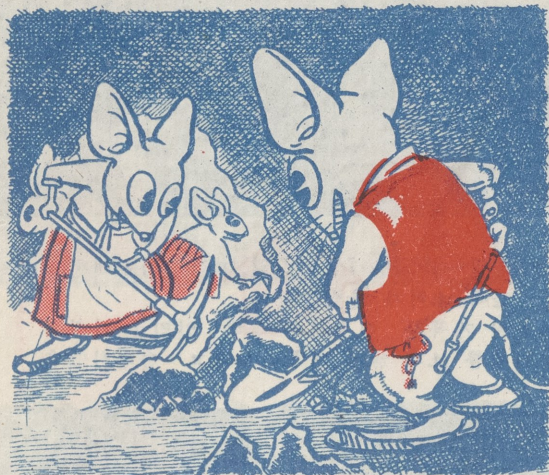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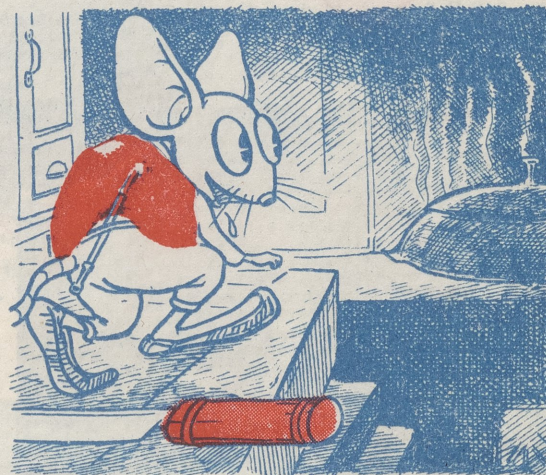
3년간의 가혹한 전쟁에서 우리 인민군 아저씨들은 미제를 보기 좋게 꺼꾸러뜨리고 승리하였습니다.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의 구호를 높이 들고 중국 인민 지원군 아저씨들은 인민 군대 아저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곳마다에서 원쑤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습니다. (개천 군우리 전투에서의 빛나는 승리)

이 그림 이야기는 1925년에 쓴 리 기영 선생의 소설《쥐 이야기》를 가지고 꾸민 것이다.
리 기영 선생은 소설에서 쥐를 통하여 지주에 대한 강한 증오심과 당시 가난한 농민에 대한 동정심을 나타내였으며 농민들에게 나아갈 바 투쟁의 길을 호소하고 있다.

(1) 이 쥐의 일 가족은 얼마전에 건너말 수돌이네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 아비쥐인 곽쥐가 이사를 하자고 말하였을 때 식구들은 모두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양지 마을까지 그 먼 데로 어떻게 이사를 하며 더구나 부자집이면 고양이와 쥐덫도 있을텐데 괘니 제명에도 못 죽는다는게지요. 그러나 아비쥐의 말도 그럴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서야 어떻게 하느냐? 수돌이네는 저의 식구도 입에 풀칠을 못하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어데 있느냐 말이야. 그렇지 않더라도 가난한 집에서 우리까지 량식을 축내느니보다 곡식이 태산같이 쌓인 부자집에 가면 딱할 것도 없고…》.

(2) 이들은 양지마을 김부자집에 이사를 오던 길로 헛간 밑창에다 굴을 뚫고 여기 저기다 곁굴까지 팠습니다. 과연 오고 보니 벼와 다른 곡식들을 얼마든지 훔쳐 먹을 수 있었습니다.

(3) 어느 날 아침부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안팎이 법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맛난 음식이 꼭 있을 것이라고 쥐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곽쥐가 부엌에 들어가 보니 과연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음식들은 모두 가마솥에 들어 있어 빛도 볼 수 없었습니다.

(4) 곽쥐는 헛걸음을 한 일을 대단히 분해 하였습니다. 도로 나오려다가 그는 어쩐지 방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다시 골방으로 뚫린 구멍을 찾아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방에는 불이 환히 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부자 혼자 앉아서 수북하게 쌓인 돈을 한창 세고 있는 참이였습니다.

법석을 하더니만 벼판 돈이 아마 그렇게 많은 모양입니다.

(5) 별안간 김부자는 《쿨룩》하고 기침 한번 하더니 련신 캑캑하며 앞창 미닫이를 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곽쥐는 김부자가 마루 끝에서 가래침을 한참 뱉는 동안에 살살 기여 방안에 들어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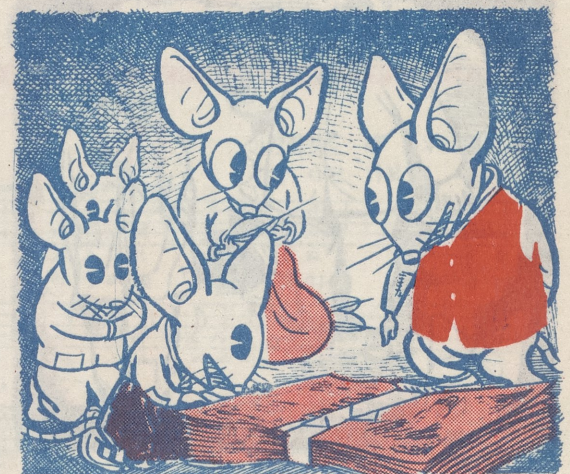
곽쥐는 사방을 둘러보다가 그 중 큼직한 지전 뭉텅이 하나를 물고 달아 나왔습니다.

(6) 행여나 고기를 훔쳐오나 하고 은근히 기다리던 식구들은 아무 것도 아닌 종이 뭉텅이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아버지! 고기는 어쩌고 그런걸 가져와요?》 딸쥐가 먼저 툭 나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돈이란다》.

《돈이 뭐하는거야요? 이런 종이 쪼각으로》.

《그래도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면 고기도 쌀도 생기고 맘먹은 대로 생긴단다》.

(7) 눈을 말똥말똥하고 한참 앉았던 딸쥐는 암만해도 이상하다는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세상에 물건을 주고 휴지 쪼각을 받는 그런 천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다 약은 놈들이 수돌이 같이 정직하고 어진 사람들을 속여 먹으려고 꾸며낸 도깨비 감투 같은 것이란다》라고 곽쥐는 대답했습니다.

(8) 《참 수돌이네는 왜 그렇게 가난하다우? 해마다 농사를 지어도?》하고 여때 아무 말없이 벼만 까 먹고 있던 마누라 쥐가 물었습니다.

《그게 다 이런 돈 가진 자에게 모두 빼겨서 그렇지》. 점잖게 수염을 쓰다듬으며 곽쥐가 말하자 아들쥐가 깡충깡충 뛰며 좋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제 보니까 우리만 도적놈이 아니로구만!》.

(9) 곽쥐는 수돌이네가 김부자를 보고 굶어 죽게 되였으니 장리'벼 열 말만 꾸어 달라고 애걸복걸하던 이야기를 하다 말고 앞 발로 땅바닥을 탁 치며 이렇게 웨쳤습니다.

《놀고 먹는 김부자가 땅을 가지고 잘 사는 것도 이 헛가비 같은 돈으로 속여서 땅을 빼은 탓이란다. 그러니까 수돌이는 빼긴 땅을 도루 찾을 권리가 있지.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김부자와 같은 지주놈들과 싸우면 찾을 수 있단 말이야》.

(10) 너희들도 이담에 세상에 나서게 될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사람의 세상이 저렇게 살기가 그악해짐에 따라서 우리네 살기도 그만큼 어려운 세상이 되여가니 언제나 힘은 선량한 사업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는 것을…》 곽쥐는 사랑스러운듯이 새끼들을 끌어 안으며 이런 훈계를 하였습니다.

(11) 《참 돈 좀 세여 보자 얼마나 되나 령감쟁이 배가 좀 쓰릴걸》. 곽쥐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돈을 세여 보는 것이였습니다. 모두 열 장이였습니다.

《자…오늘 밤에는 우리도 돈을 좀 깔고 자자 마누라도 한 장 깔고 또 이렇게 병풍을 치고 나머지는 수돌이에게 갖다 주자구…》.

《참 그 생각 잘 하였소. 그럼 나 깔 것까지도 갖다 주오》하고 마누라도 대찬성을 하였습니다.

(12)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갖다 준다오?》하고 마누라가 걱정하였으나 곽쥐는 자기가 얼른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곽쥐는 지전을 똘똘 말아서 입에다 물고 그 길로 수돌이네 집을 향해 달음박질쳤습니다.

희미한 등'불이 깜박깜박하는 방 안에는 수돌이네 식구가 모두 굶어서 늘어져 있는 것이였습니다. 곽쥐는 방바닥에 지전을 내 던지고 얼른 나왔습니다.

(13) 곽쥐가 집에 돌아오니 마누라와 새끼들은 그저 자지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곽쥐를 주려고 벼를 수북하게 까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 곽쥐는 밤참을 잘 먹고 지전 깐 새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 ×

이튿날 수돌이네 집에서는 난데 없는 돈 륙십원이 생기고 김부자네 집에서는 백원을 잃었다고 야단 법석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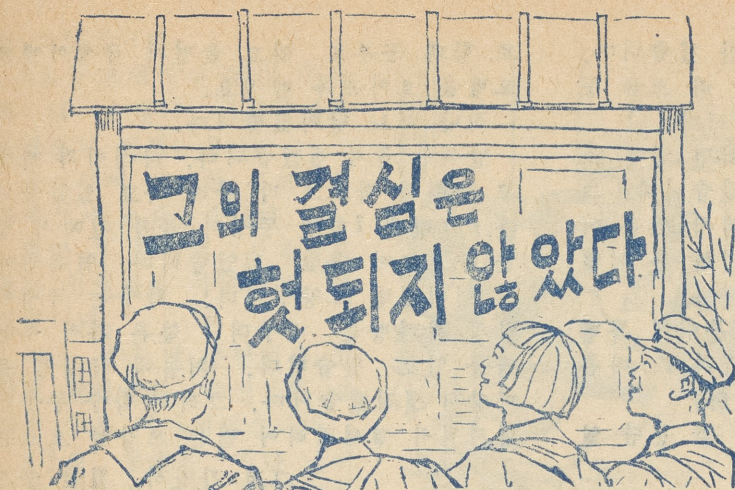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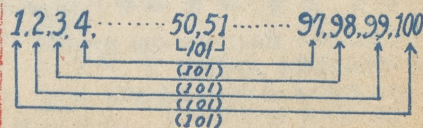
방학간 두 동무의 생활

황북 연탄군
능리중학교
리석휘 그림

《인민군 형님과 함께》

개천 초등학원 4학년
박 영 그림

하나부터 백까지 합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일 많은 수인(100)과 제일 적은 수인(1)을 합하면(101)이 됩니다. 또 그 다음 수인(99)와 (2), 다음 수인 (98)과(3), 이런 차례로 합하면 (101)이 50조 됩니다. 그리하여(101×50)으로(5,050)이 됩니다.

◇박 정 렬◇

추위도 아랑곳 없이 극성이와 그의 동무들은 떠들어 대며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야! 인공 위성이 도는 그림이구나》.

《참 멋진데!》. 중앙 은행 옆에 있는 게시판에 크게 그려 붙인 그림을 들여다 보며 이들은 몹시 흥미 있어 했습니다.

《이거 야단났는데 바람에 떨어져서》.

둥근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담고 이렇게 말하는 동무는 극성이였습니다.

《그것 참 떨어지누나》.

《이건 래일 아침 학교 갈 때 내가 붙일 테야》 이 말에 동무들은 말없이 극성이를 바라보며 씽긋 웃는 것이였습니다.

극성이도 모자를 벗었다 푹 내려 쓰면서 어깨를 으쓱하고 의미 있게 히죽 웃었습니다.

《참 어제 열성자 모임에서도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극성일 여간 칭찬하지 않았어, 앞으로 대 기'발 앞에서 표창할 수 있는 동무라고—》. 학수 동무가 이렇게 말하자 극성이는 별안간 새침해서《애들은 또 십전짜리 비행기를 태울려드누나, 그래 너희들까지 비웃을 셈이냐?》라고 말했으나 저도 모르게 마음은 밝아 오고 기뻐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단 열성자 동무들과 리 학수 동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 *

지난 9월 새학년도가 시작되자 2분단에는 새로운 동무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아버지를 따라 전학해 온 동무들도 있었지만 리 극성이처럼 학교 구역이 달라져서 다른 학교에서 새로 온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동무들은 서로 자기가 다니던 학교 자랑을 내놓느라고 없는 자랑까지도 꾸며 대며 뽐냈습니다.

극성이도 그런 축이였습니다.

《아마 우리 학급에서는 륙상과 주산에서 내가 제일 일걸》. 이렇게 생각하는 극성이에게는 4학년 공부가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졸업을 못하고 다시 4학년에 남게 되였으니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극성이에게는 누구보다도 뽐내기를 좋아하며 우쭐해지는 버릇이 차츰 생겨났고 분단에는 말썽만 생겼습니다.

공부 시간에도 극성이는 자기에게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도망치거나 장난질을 해서 선생님의 꾸중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부모들의 일을 잘 도우면서도 그는 대나 분단에서 하는 일과 청소 때면 뺑소니를 치군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어느 날입니다. 분단에서는 난로에 땔 나무 운반을 돕게 되였습니다. 방과 후에 연덕산 뒤'골짜기에 올라 소년단원들은 서로 힘을 모아 나무 토막을 메고 지고 하여 학교까지 날라 왔습니다. 교실에 들어온 동무들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극성이만은 한참 후에야 어슬렁어슬렁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웬일일가?》. 열성자들에게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극성이는 학교에 가져 와야 할 나무를 자기 집에 가져 간 것이였습니다.

《넌 자기밖에 모르는 애야, 학교 나무도 집에 가져 가는걸 보니》.

《그래 무슨 상관이야 되지 못하게》. 극성이는 분단 위원장의 말에 이렇게 대들며 좀

채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려 안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분단 위원장인 리 오금 동무는 자기 대로 안타까와했습니다.

오금 동무는 곰곰히 생각하던 끝에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을 찾아 갔습니다. 그는 지도원 선생님에게 분단에서 있은 여러 가지 말썽들을 죄다 이야기한 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지도원 선생님은 앞으로 12분단에 특별히 관심을 돌려 줄 것을 약속하며 다른 분단의 경험을 들려 주었습니다.

다음 날 방과후 오금 동무는 곧 분단 열성자 모임을 가지고 《분단의 규률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열성자들과 의논하였습니다.

《우리 분단엔 극성이가 말썽이야》.

《그 애에겐 단단히 비판을 줘야 해, 말로만 타일러선 안 되는걸》.

《일기를 쓰면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게 어때》 등등 동무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의논 끝에 우선 분단 벽보에 《누가 학생 규칙을 지키지 않는가?》하는 란을 만들고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벽보에 오른 것은 역시 극성이였습니다.

어느 날 극성이는 길을 묻는 웬 할머니에게 우정 왕청같은 데를 대여 드려서 그 할머니를 헛걸음하게 하였습니다.

이 옳지 못한 그의 행동을 비판 기사와 함께 만화를 그려서 벽보에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벽보도 극성이에게는 큰 자극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단 위원회에서는 모든 일에서 모범적인 리 학수 동무가 극성이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본래부터 극성이는 학수와 친한 사이므로 함께 공부도 하고 놀면서 극성이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했지요.

지난 어느 날이였습니다.

날씨는 몹시 맵짰습니다. 극성이와 학수도 추워서 학교로 막 달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동생이 골목'길에서 발을 주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얼음판에서 넘어졌던 모양입니다. 학수는 극성이에게 책가방을 내주더니 얼른 가서 우는 애를 업고 왔습니다. 처음에 극성인 못마땅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수 동무가 힘겨워서 낑낑거리며 걷는 모양을 보고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내가 좀 업을게》. 극성이는 냉큼 1학년 동생을 받아 업었습니다.

이 일은 인차 분단 벽보에 소개되였고 분단 위원회에서는 극성이를 대단히 칭찬했습니다.

그후부터 분단 위원회에서는 극성이가 《나와 분단》에 대하여 잘 인식하며 웃 어른들을 존경하도록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분단 열성자들은 방과후와 일요일을 타서 극성이네 집으로 자주 놀러 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극성이는 꼬마들과만 놀며 몹쓸 장난질하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한편 분단에서는 11월말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하는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　*

오래'동안 준비해 오던 분단 모임 날이였습니다. 화려하게 차려 놓은 교실에는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이 많이 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도!》. 극성이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지르며 눈이 둥그래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였습니다.

미리 분단 위원회에서 극성이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아마 그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오늘 모임에선 꼭 내 문제가 나 올텐데 어머니까지 오셨으니 어쩐다?》.

극성이의 머리는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모임이 시작되자 분단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날 분단에서 있었던 말썽들과 극성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극성 동무는 지난 날에 나쁜 일들을 많이 저질렀지만 앞으로 꼭 고칠 수 있는 좋은 동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분단 위원장은 얼마 전에 1학년 동생을 학교에 업고 온 극성이를 여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에야 극성이는 조금 마음이 놓여 어머니를 힐끔 쳐다 보았습니다. 막 성나 계실 줄 알았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하면 어머니와 동무들은 언제나 이처럼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극성이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동무들 앞에서 이렇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나도 앞으로는 분단의 위임에 충실하면서 웃사람들을 존경하며 동무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겠습니다》.

함남 북청군 성동 중학교 대
제12 분단(인민반)에서

독자 여러분에게

잡지 《소년단》은 앞으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소년들의 투쟁기를 많이 게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잡지 《소년단》은 소년들의 전쟁 시기 투쟁기를 많이 게재하려고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년들의 투쟁기를 편집부의 힘 만으로는 다 캐여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지방, 자기 학교 출신 소년들이 지난 전쟁 시기에 원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여 또는 그 앞잡이 반동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투쟁기를 소개할 수 있도록 편집부를 도와 줄 것을 독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향토 연구 크루쇼크에서 그 자료를 수집하여 보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투쟁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알려 주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방 전에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여 싸운 소년들의 투쟁 사실도 알려 주십시요.

주의할 점—투쟁에 참가한 주인공들은 누구 누구이며, 그들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직을 가지고, 누구의 지도를 받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싸웠으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자세히 밝히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현재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도 기록하여 주십시요.

그런데 신문, 잡지에 널리 소개되지 않은 것이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주인공들의 사진, 투쟁 유물들이 있는가도 알려 주십시요.

보내는 곳 - 평양시 민주청년사
《소년단》 편집부

(중국) (동화) 울릉새는 어째서 깃이 하나도 없는가?

날짐승의 왕인 영특한 불사조의 생일이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만수 무강》을 축원하고자 수없이 많은 새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다리가 싱큼한 황새며 빛이 검은 학들, 은색 꿩들, 그리고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숫한 새들이 모여 왔더랍니다.

좌석은 무척 흥겹고 떠들썩하였습니다. 꾀꼴새들이 노래하고, 종달새들도 지지귀고, 까마귀는 시끄럽고 석쉼한 소리로 까욱까욱 울어댔지요. 불사조의 좌우편으로 수백 마리의 새들이 늘어 서서 저마끔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불사조는 가지각색으로 된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으로 칠한 높은 룡상에 앉아 사랑스러이 좌중을 둘러 보며, 행복과 장수를 축원하는 말들을 고맙게 여기며 듣고 있었지요.

이 때 문득 영특한 불사조는 먼발치에 자그마한 울룽새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는 매우 불쌍해 보였습니다. 깃이 하나도 없고 벌거숭이인데 구서운듯이 한켠 구석에 웅크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보자 불사조는 좌우에 늘어선 새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를 축복하려고 아주 훌륭히들 차리고 왔소. 헌데 저 울룽새에겐 어찌하여 깃이 하나도 없는가요?》.

《우리들은 거기에 관심조차 돌리지 않았사옵니다. 울룽새는 태여날 때부터 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는 까닭이옵니다》하고 꾀꼴새가 아뢰였습니다.

꾀꼴새의 말을 듣자 영특한 불사조는 이렇게 말했지요.

《용감한 여러분! 하늘은 울룽새를 학대하였으나 우리는 저 새를 도와야 하겠소. 각자 자기의 깃을 한 대씩 뽑아 저 새도 남들과 같아지도록 옷을 입히는 것이 어떻소?》.

새들은 모두 그 분부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울룽새는 깃을 가지게 되였는데, 아주 예뻐졌습니다. 어찌나 예뻐졌는지 많은 새들이 시샘을 할 지경이였지요.

울룽새의 마음은 대단히 흡족하였습니다. 그는 제 옷에 반하여, 마침내 기쁨을 참지 못하고 날개를 치며 노래 불렀습니다.

《지지챠! 지지챠! 불사조 말고는 나보다 잘난 새가 없지. 나보다 더 예쁜 새는 없어!》.

새들은 이 소리를 듣고 화를 냈습니다.

《저 울룽새를 좀 보우! 그 깃이 죄다 우리 것이라는 걸 잊어 버렸거든! 자 우리의 깃을 죄다 뺏읍시다!》.

새들은 그 자랑꾸러기를 둘러싸고 그의 깃을 죄다 뺏아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번거숭이가 된 그 불쌍한 울룽새는 죽을 지경으로 겁이 나서 한쪽 구석으로 다시 숨었습니다.

《용감한 여러분, 참 잘들 했소.》영특한 불사조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마음으로 울룽새를 도와 주었는데, 저 새는 제 자랑을 하며 당신들을 볼 념도 하지 않았소! 이젠 아무도 저 새한테 아예 깃을 주지 마시오》.

울룽새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나 물론 불사조의 말을 반박할 수는 없었지요.

이래서 울룽새에게는 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민 동화

(중국) (동화) 중과 학생

학교에서 선생 노릇을 하는 한 중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먹는 것과 자는 것을 가장 좋아하였답니다. 그래서 매일 학생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그는 자기 몸도 겨우 옮겨 놓으리만치 배불리 먹군 하였지요.

중은 학교에 오자마자 곧 잠이 들어, 하학종이 울릴 때까지 자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에 리 모라고 하는 빈농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은 중에게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존경하옵는 선생님! 황송합니다만, 어째서 선생님은 공부 시간에 내내 주무시기만 하시는지요?》.

《얘야! 그건 내가 자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란다》.하고 중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나는 그 동안 부처님을 만나서 슬기로운 말씀을 듣군 한단다. 그래서 난 될수록 잠을 많이 자려고 애쓰는게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병든 아버지를 밤새도록 구환하다가 이튿날 아침 학교에 왔는데 그만 공부 시간에 잠이 들었지요. 그는 어찌나 잠이 깊이 들었던지, 중의 잠을 깨운 그 하학종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학생이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중은 노발대발하여 그 학생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학생의 귀를 잡아 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에키, 후레아들놈 같으니! 어째 공부 시간에 잠을 자느냐?》.

《선생님, 그건 다만 제가 자는 것처럼 보였을 따름이옵니다》하고 그 학생은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찾아 가서 슬기로운 말씀을 들었사옵니다》.

《그래 전지전능하신 부처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시더냐?》.

《전지전능하신 부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였사옵니다.〈난 평생 너의 선생을 한 번도 만나 본 일이 없다〉》.

인도 동화

공중 루각

★ 물크 라쥐 아난드 ★

그 언젠가 인도에 한 브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브라민—승려 계급에 속하는 사람—역주) 그는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공중 루각이나 지어 보는 것을 좋아하였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디여 그의 어머니로 하여금 싫증을 느끼게 하였지요. 어머니는 아들이 헛되이 시간만 보내는 것을 핀잔하며, 무슨 사업이든지 착수해 보라고 타일렀습니다. 마침 브라민도 이제는 할 일없이 지내기가 지긋지긋해졌던 까닭에 어머니의 충고를 듣기로 하였지요.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려 노릇을 하자니, 브라민은 학식이 모자랐습니다. 또한 군인이 되기에는 그의 몸이 너무도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브라민 계급에 속해 있었으니만큼 남의 하인 노릇은 할 수 없었지요.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그는 장사를 하리라 결심하였습니다.

《그래 무슨 장사를 하고 싶으냐?》하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쌀 장사, 의복 장사, 식료품 장사 등 여러 가지를 권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브라민은 그것을 죄다 반대하고, 자기는 번들번들하는 유리 사치품들과 곱게 물들인 질그릇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그에게 장사 밑천을 대주었습니다.

브라민은 유리 그릇을 한 바구니 가득 사서 장마당에 갖다 놓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별을 받은 유리 그릇들은 가지각색으로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유리 그릇에 반사된 빛은 브라민의 마음 속으로 뚫고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브라민의 마음은, 높은 하늘로 둥둥 떠 올라 갔습니다.

《이 그릇들을 10퍼센트만 리익을 남겨서 팔아야지》. 그는 이렇게 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구선 인조 진주를 사다가 그것두 10퍼센트만 남겨서 팔테야. 그러면 그 돈이 100루피는 될게거든, 영락없이 그만큼은 될거야! 그 다음은 그 돈으로 염소를 몇 놈 사야지. 그러면 그 놈들이 여섯 달마끔씩 새끼를 칠테니까, 오래잖아 내겐 숫한 염소들이 생길게거든. 그 염소들을 팔면 암소를 대여섯 마리 살 수 있을거야. 그 놈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걸 팔아서 물소를 몇 짝 사놓구, 그 다음 물소를 판 돈으로는 암말을 사야지. 그러면 그 말들이 또 새끼를 쳐서 숫한 말이 생길게 아닌가. 그 다음은 금'뎅어리를 받구 그걸 몽땅 팔테야. 그리고 그 금'뎅어리로 높은 산마루에 대궐을 짓구, 그 주위에다는 수목이 무성한 정원들을 만든단 말이거든. 그러면 령주가 그 소문을 듣고, 자기 딸에게 혜장을 많이 달아서 날더러 얻어 가라고 할게거든. 그래서 장가를 들면 우리 사이에 아들이 생길테지. 아들놈이 내 무릎우에서 재롱을 부릴만큼 크면, 난 우리 집에 앉아서 그 애를 불러다가 같이 놀아야지. 그러다가 그 애의 장난질에 싫증이 나면, 난 화를 내구 욕을 해 줄테야. 그래서 그 놈이 울면, 마누라더러 빨리 와서 애를 달래라고 해야지. 그 때 마누라가 무슨 일'감을 붙들고 꾸물거리고 있으면 난 당장 달려 가서 한동안 정신을 못차릴만큼 발'길로 콱 걷어차 줄테야》.

브라민은 이런 꿈을 꾸기에 어찌나 골몰하였던지 그 공상은 현실로 바뀌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소리를 지르며 발'길로 바구니를 냅다질렀지요. 그바람에 유리 그릇들과 질 그릇들이 모조리 박산이 되여 땅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브라민의 공중 루각 (공중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공상)은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답니다.

인도네시아 동화

미련한 소년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더러 가게에 가서 성냥을 사 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냥을 골라서 잘 켜지는지 알아 보라고 타일렀지요.

소년은 가게에 가서 성냥을 샀습니다. 그런데 잘 켜지는지 알아 볼 것을 깜빡 잊고, 집으로 돌아 오다가야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잘 켜지는지 아니 켜지는지 어떻게 알아 보겠어요?

그는 성냥 한 가치를 꺼내서 켜 보았습니다. 불이 잘 일어 났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다른 가치들이 안 켜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또 한 가치 켰습니다.

이와 같이 성냥을 죄다 켜 보고, 켜고난 가치는 도로 곽 속에 넣었습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 와서 아버지에게 성냥을 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려고 본즉 성냥갑 속에는 이미 켜 버린 가치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둥그래져서 어찌된 셈이냐고 아들에게 물었지요. 소년은 《난 한 가치라도 안 켜지는 것이 있을가봐 몽땅 켜 봤어요》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리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옳바로 배우지 못하면 언제나 이런 법입니다.

인민 동화

비르마 동화

어리 석은 세 친구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나무 아래 앉아 삶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토끼는 짐승들 중에서 피바리로 이름이 났답니다.)

《이 세상엔 근심'거리가 꽉 들어찼구, 걸음마다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으렸다》. 토끼가 스스로 하는 말이였습니다.

《우선 지진이나 사태나 태풍 같은 자연 재해가 일어 날지도 모르고, 둘째 저축한 량식이나 물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늘 굶어 죽을가봐 걱정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도적놈이나 강도들이 언제 달려 들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중얼거린 토끼는 그 누구와 꼭 만나기로 한 일이 생각나서 부랴부랴 달려 갔습니다.

토끼는 그 밀림에 사는 세 짐승이 자기 말을 엿듣고 깜짝 놀랐을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것은 치비쓰(되롱새와 비슷한 자그마한 새—역주)와 지렁이와 원숭이들이였지요.

치비쓰는 자연 재해에 대한 생각을 하자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글쎄 내가 잘 때,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면 어쩐다니?! 낮에 무너진다면 그래도 날아 날 수 있으니 괜찮지만, 만약 내가 잘 때 무너지면 난 짓눌려 죽을게 안야!…》.

지렁이는 굶어 죽는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아유, 내 량식인 땅이 다 없어지면 난 꼼짝 못 하고 죽을 판이로군!…》.

그런데 원숭이는 대뜸 도적놈들과 강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이 글썽하여 말했지요.

《난 무엇보다도 땅을 제일 소중히 생각해. 헌데 나는 나무 우에서 자는 버릇이 있으니까. 밤만 되면 땅에서 떠나야 하거든. 그러니 만약 내가 자는 새에 도적놈이나 강도가 와서 땅을 훔쳐 가면 어쩐다?!》

이 때부터 치비쓰는 언제나 발랑 드러누워, 그 보잘 것없는 다리를 쳐들고 잔답니다. 가령 갑자기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그것을 떠받치기 위해서지요. 지렁이는 제 량식인 땅을 축내지 않으려고 먹은 것을 몽땅 게워 놓는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매일 밤 세번씩 나무에서 내려와, 땅을 밟아 보며 도적놈이 훔쳐 가지 않았는가 확인하군 한답니다.

(송 동규 역)

새로 나온 책들

중편 소설

쌍 무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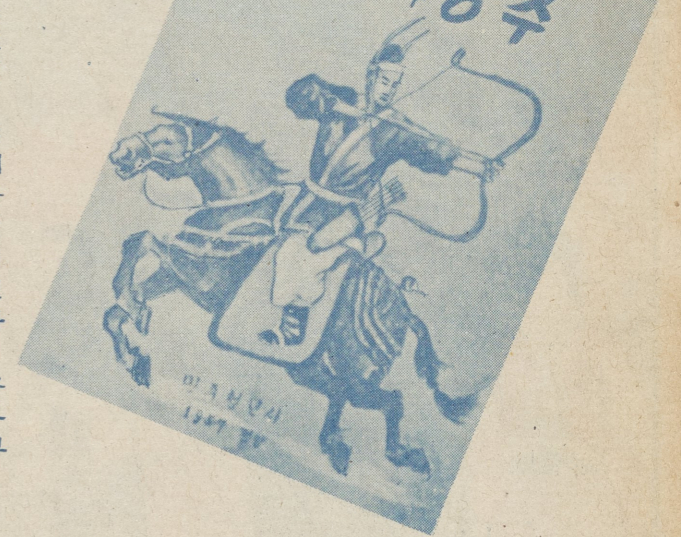
강 효순 작

《쌍 무지개》는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일어났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가족을 잃고 방황하던 명수와 창덕이를 비롯한 고아들의 생활을 보여 준다.

가족을 잃은 명수와 창덕이는 방황하다가 부랑배 두목인 왕청이의 꾀임에 넘어 차츰 그들의 생활에 물젖어 간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안되여 곧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품 속에서 행복한 새 생활에 들어서게 된다. 그들은 초등 학원에 들어가 글을 배우게 되며 소년단 생활에서도 모범적인 소년으로 자라난다. 그들 가운데는 일터에 나가 사회주의 건설자로 자라는 소년들도 있다.

《쌍 무지개》는 이렇듯 전쟁이 빚어낸 불행한 고아들을 어떻게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행복의 보금 자리에로 다시 이끌어 주었는가를 감명깊게 보여 주는 작품이다.

× ×

이 밖에 《온달과 공주》, 《심청전》도 새로 나왔다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리 원우 리 동무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1958년 1월 2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1월 30일 발행 《소년단》 1958년 제 2 호(총100호)
발행소 민주청년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771 값 25원 80,000부 발행

평화와 사회주의는 세계에서 승리하고 있다…원 광수 그림